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5925.03	↑ 코스닥	1164.38
	(+284.55)		(+27.44)
↓ 금리 (연이자율)	3.261	↓ 환율 (원/달러)	1486.00
	(-0.063)		(-7.60)

metro® 경제



“자본시장 활성화하면 부동산 집중문제 해결”

청년 실업률 7.7% 5년만에 최고수준

李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한반도 분단,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과도한 부동산 집중 문제도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생겨난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고,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 불공정성, 경제정책 예측 불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 웬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다만 과장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4배가 넘고, 재래식 군사력 평가는 세계 5위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구조에서 계속 발생하는 문제”라며 “분명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만 썩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 겪을지 모르니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며 “지배권 남용·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라고 부연했다.

시장 불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의지를 또 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해서, 주가를 조작할 경우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것을 실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문제는 주가조작 관련해서 신고 포상금을 몰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고 가담자의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도) 도입 등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단속 인력 대폭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데이터처, 2월 고용동향

지난달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이 상승했으나 15~29세 고용률은 22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또 이들 청년층은 실업률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3만4000명(0.8%) 늘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새 가장 큰 증가폭이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16만3000명)에서는 뒷걸음질했다. 40대는 변동 없이 유지됐다.

고용률은 61.8%로 전년동월에 비해 0.1%포인트(p) 올랐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되레 1.0%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9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4000명(5.7%) 증가했다. 실업률은 3.4%로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이 중 특히 15~29세 실업률은 7.7%로 1년 만에 0.7%p나 뛰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10조 자사주 소각·배당… AI 투자확대”

‘칩플레이션’ 삼성·애플, 원가절감 사활

삼성전자, 57회 정기 주주총회
“작년 매출 333.6조 사상최대 기록
한국기업 최초 시총 1000조 돌파”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부문장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삼성전자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각각 10조원대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주와 기관투자자,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에서는 지난해 경영 성과와 함께 올해 사업 전략, 주주환원 정책 등이 공유됐다.

주총 의장을 맡은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매출 333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주가 상승으로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설명했다. 전 부회장은 “지난해 기술 경쟁력을 반성하고 회복을 약속드렸다”며 “저희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그 약속을 지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I 사이클 기획을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올해 반도체 시장에 대해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투자 효율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메모리·파운드리·로직 설계·칩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메모리 경쟁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HBM4 등 AI 및 서버용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전 제품 품질 우위를 확보해 경쟁력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양사, 폴드 신제품 출시 앞두고
기능조정·보급형 전략 등 고심

칩플레이션(반도체 가격 상승) 여파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하반기 출시할 폴더블폰 가격 인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다만 양사는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 절감과 제품 전략 조정에 나서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 폴드7(265GB)’ 모델은 약 237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신작은 주요 부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애플의 첫 폴더블폰 역시 최대 400만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두 번째 접는 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359만원 가격대로 형성돼 소비자 부담

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향후 출시될 신제품 가격이 이를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출시 3개월 만에 판매를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높은 제조원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상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칩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지난해 AP솔루션 매입 비용은 13조 9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이에 최근 발표한 갤럭시 S26 시리즈의 국내 출시가격을 최대 20만 9000원까지 인상한 바 있다.

폴더블폰의 경우 접힌 구조를 지탱하는 힌지와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디스플레이의 원가 비중이 AP 못지않게 크다.

<2면에 계속> /차원정 기자 hyeon@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일본·카타르·사우디에 감사 서한… “한국민 중동 대피 적극 협조”
▲정성호 “李대통령 개헌 검토 지시…법리 검토 본격 착수” /사진 뉴스시스

▲與김용민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도 남겨서는 안 돼”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절차 더 진행 안 한다”

▲송언석 “공소청·중수청법 본회의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동원”
▲조은희 “장동혁 안 바뀌면 서울 선거 따로 치러야…별도 선대위 불가피”

중동전쟁 경제 후폭풍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급망 기업 1.5조 금융지원

정부, 석화분야 등 수급불안 대응 자동차 부제 검토·수출물량 제한 구윤철 부총리 "추경안 조속히 마련"

정부가 석유화학공업의 주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시장 내 나프타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감의 일환으로 '차량운행 요일제' 등의 검토에 나선다.

국내로 들어오는 석유류 중 나프타의 경우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안보 품목 지정 시 공급망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중동 전쟁으로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경제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프타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능한 정

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 동향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대해 1조5000억 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체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에 대해 금리를 최대 2.3%포인트(p) 할인하는 우대금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관련해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 가격이 대폭 내려간 만큼 주유소의 소비자 자가격도 지체 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며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상

시 모니터링하고 현장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관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교역량 및 인적자산 등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정유사 수출물량 제한, 석탄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동차 '부제' (5부제·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관리 대책을 추가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엔화값 급락에 원화 '흔들'... 금융위기 악몽 재현되나

달러·엔 환율 2024년 수준 하락 원화 동조성 높아... 1500원선 위협

'중동사태' 여파로 엔화값이 크게 떨어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원유값이 급등하면서 동아시아 권역의 에너지 수급에 빨간불이 켜져서다. 엔화값이 20개월 만에 달러당 160엔을 목전에 두며 2024년의 '초엔저'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엔화와 동조성이 큰 원화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정보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선물시장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159.03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값이 연중 최저를 기록한 지난 13일의 159.73엔(종가 기준)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달러당 160엔 선을 지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엔화값이 달러당 160엔을 넘긴 것은 지난 2024년 7월이 마지막이다.

이번 엔화값 하락의 배경은 '다카이치 2기 내각' 출범 이후 엔화가 약세인 가운데, 중동사태가 발발하며 경제의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군사작전으로 촉발된 '중동사태'는 일본의 에너지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는 기축통화인 엔화에 동조하는 경향이 크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경제 구조가 유사하고, 같은 권역 통화로 묶여 취급되는 특성도 있어서다. 달러 대비 엔화값이 상승

하면 원화값이 함께 상승하며 엔화값이 하락하면 원화도 함께 하락한다.

엔화가 달러당 160엔을 목전에 둔 역대급 약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원화도 달러당 1500원을 눈앞에 두며 고환율 국면에 있다. 지난 1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의 주간증가는 달러당 1493.6원으로,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겼던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가장 임박한 변수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다. 일본은행은 18~19일 금융정책회의를 진행한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0.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금정위 직후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내놓을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4월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실한 단서가 제시된다면 엔화값이 상승하게 된다.

앞서 우에다 총재는 금정위를 앞둔 지난 17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2%를 향해 원만히 가고 있고,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까지 안정 목표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임금 상승을 동반한 형태로 물가 안정 목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되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라며 다소 매파적(긴축 선호)인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동서발전 에너지 절감조치 강화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사진)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초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한다.



18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강화 방안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동서발전은 사육 난방온도를 정부 권고(18도)보다 낮은 17도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조명 소등과 PC 절전 소프트웨어 운영은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승강기는 4층 이하 운행을 금지하며 5층 이상은 격층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을 높인다.

아울러 사내 복지시설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온수 온도를 제한하는 등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생활밀착형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가격 인상 불가피 상황... 기능·경험 기반 수요확보 전략 강화

>> 1면 '칩플레이션 삼성·애플'서 계속

이로 인해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핵심 부품인 힌지 공급망을 기존 한국 업체 중심에서 중국 업체까지 확대하며 원가 절감 여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

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아직 폴더블폰 신제품의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사장은 지난 1월 열린 연례 기자회관에서 "전략과 트너사들과의 중장기 계약과 하드웨어 효율화 등을 통해 비용 상승 요인을 최

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도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며 가격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 선보인 '아이폰 17 e'는 99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서도 기본 저장 용량을 전작 대비 두 배 늘린 256GB부터 제공했다. 가격은 유지하면

서 사양을 높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AI 역량 확대를 비롯해 모바일 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에도 나서려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지식 그래프' 기술을 보유한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해 온디바이스 AI 고도화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허만을 통해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하며 웨어러블 중심의 생태계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품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조사들은 라인업과 기능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저가 모델로 수요를 확보하고 플래그십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구조도 나타나고 있다"라며 "가격 경쟁보다는 기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수요 확보 전략 또한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코리아 프리미엄 승부... 중복상장 막고 코스닥 2부리그 도입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추진
코스닥 성장단계별 체계 개편
저PBR 기업 공개해 가치제고 유도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100조+ α 시장안정 프로그램 가동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안전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재편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의 체질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100조원+ 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시장 불안 차단에도 나선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일반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며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해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은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

되는 '2부 리그' 체계로 개편된다.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을 분리해 운영하고, 기업이 단계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력과 역동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코넥스부터 코스닥, 코스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도 담

겼다. 불공정거래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확대하고 통신조회권 부여 등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 포상금에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의 최대 30%

까지 지급하도록 확대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도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는 '네이밍 앤 세이밍' 방식이 도입된다. 업종별 저PBR 기업을 공개하고 종목에 태그를 부여해 시장 압력을 높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시장 구조 개편도 병행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기술특례상장 확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자금 공급을 통해 모험자본 생태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토큰증권(STO) 제도 역시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단기 대응도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100조원+ 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상황 장기화 시 추가 확대 방안도 마련해둔 상태.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레버

리지 투자 등 잠재 리스크도 집중 관리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다.

그는 "시장을 정리할 때 큰돌만 치워서는 옥토가 되기 어렵다"며 "이제는 중간돌, 자갈까지 걷어내야 진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 제도를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대의 충격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장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대응수단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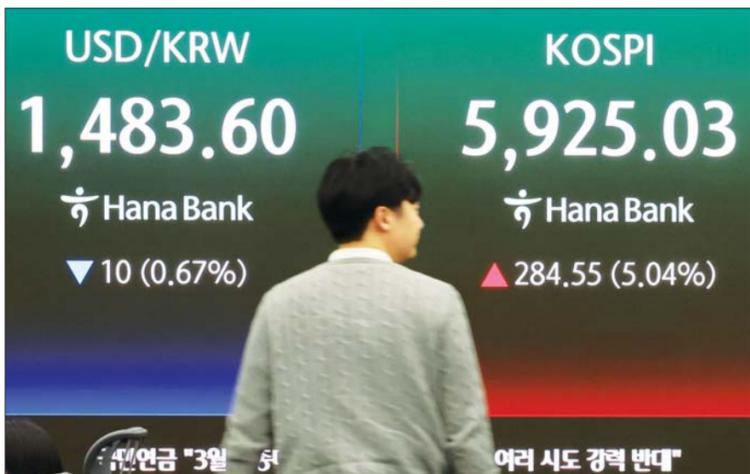
지주사 할인 해소 기대 확산에... 저PBR株 재조명

'자본시장 안정·정상화' 간담회
지주사·금융주 중심 수혜 기대
증시 재평가 전망에 관련주 강세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와 저PBR 기업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관련 수혜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주사, 금융주, 코스닥 성장주를 중심으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상장기업, 개인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 방향으로 ▲중복상장 제한 ▲코스닥·코넥스 활성화 ▲장기투자 상품 확대 등을 제시했



코스피 급등세로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284.55 포인트(5.04%) 오른 5925.03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다. 특히 중복상장 규제는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상태다.

특히 중복상장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수혜군은 지주사

다. 자회사 상장을 통한 가치 희석 우려가 줄어들면서 기존에 적용되던 지주사 할인 요인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CJ, DN오토모티브, HD현대, LS, SK 등 비상장 자회사를 가진 그룹 지주사들이 대표적인 수혜 후보로 거

론된다. 비상장 자회사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CJ는 CJ올리브영, DN오토모티브는 DN솔루션즈, HD현대는 HD현대로보틱스, LS는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 SK는 SK에코플랜트 등을 비상장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날 LS(+7.22%)를 비롯해 CJ(+3.63%), DN오토모티브(+6.01%), HD현대(+2.61%), SK(+3.68%) 등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중복상장 제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테마를 넘어 한국 증시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신디 박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기업 개혁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8000선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 효율성 개선과 중복 상장 해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PBR(주기준자산비율) 기업 개선 정책 역시 관련 종목군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를 유도할 경우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금융주와 보험, 일부 제조 대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재조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 저PBR 종목으로 꼽히는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날 이들 종목은 KB금융(+2.65%), 신한지주(+4.17%), 삼성생명(+8.29%) 등 상승세를 보이며 정책 기대감이 일부 정책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흐름을 나타냈다.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PBR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 세이밍' 방식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며 "기관투자자의 감시 역할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



metro

금리불안 덮친 대출시장... 주담대 줄고, 마통 늘었다

중동 변수에 주담대 주춤
마이너스 통장 잔액 1조 급증

중동 사태 여파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뛰면서 실제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대출은 '비상금 통장'으로 불리는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급격히 늘어나 1조원 이상 증가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610조

20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과 비교해 5175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주담대는 올 1월 1조4836억원 감소한 이후 2월 5699억원 늘며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담대가 감소한 이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고채금리, 시장금리가 연속으로 오르고 있어서다.

이날 기준 5대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5년 고정(혼합)형이 4.17~6.77%로 집계돼 중동 사태 이후 상당 기준으로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약 두달전

인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해 상단이 0.47%포인트(p), 하단이 0.14%p 상승한 수준이다.

6개월 변동형은 3.61~6.01%로 상단이 6%를 넘어섰다.

주담대 금리의 주요 지표인 5년물 금리는 지난 1월 16일 3.580%에서 지난 17일 기준 3.877%로 0.297%p 상승했다.

은행채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다 연말과 연초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오히려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767조2511억원으로 전달 말과 비교해 1조3856억원 증가했다.

이는 가계대출에 포함되는 신용대출이 1조7348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신용대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편리한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40조8601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4352억원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중동 리스크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자 차주들이 신규 대출이나 갈아타기를 미루는 분위기"라며 "당장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한 신용대출, 특히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금리 수준뿐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수요가 더 빠르게 위축되는 특징이 있다"며 "반면 신용대출은 단기 자금 수요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삼성전자 “1년만 기다려달라” 파운드리 수익성 회복 ‘자신감’

다년 계약으로 불확실성 최소화
사전 수요 파악 통해 투자 탄력 조정
최근 실적회복... 성과급 전진 확대

삼성전자 주주총회 현장에서는 파운드리 수익성과 AI 반도체 경쟁력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작자가 지속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회복 여부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개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수조원대 작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 전자 주주총회에서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은 “데슬라와는 지난해 계약을 체결했고 단순 수주를 넘어선 전략적 협력 관계”라며 “2나노 공정 기반 양산은 내년 하반기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운드리에는 최소 3년 이상의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으로 1년 정도만 기다려주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HBM 경쟁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전영현 부회장은 “HBM4는 고객으로부터 ‘어메이징’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며 “차세대 제품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현금보유 여력 및 AI 거품 우려와 관련해 다년 간의 메모리 공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부문장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급 계약을 대처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중장기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 또는 연 단위로 가져가던 고객사 계약을 3~5년 단위의 다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수요 변동을 파악할 수 있어 투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거와 같은 실적 변동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바이스솔루션(DS)은 HBM(고대역폭메모리)4 등 고부가 메모리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파운드리에는 GAA(Gate-All-Around) 기반 2나노 공정 확대에 나선다. 시스템LSI는 SoC(시스템온칩) 설계 경쟁력과 공정 최적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한다.

주주 질의응답에서는 인재 확보와 임

금 경쟁력 문제도 언급됐다. 회사 측은 “성과급이 낮았던 시기 보상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실적 회복에 따라 성과급과 인센티브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총장 로비에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기술과 제품이 전시됐다. HBM4와 2나노 공정 기술을 비롯해 갤럭시 S26, 갤럭시 Z 트라이폴드(TriFold), 비스포크 AI 가전, 마이크로 RGB TV, 투명 마이크로 LED 등이 공개됐다. 전시 공간에서는 제품 설명을 듣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주주들의 모습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주주 반응도 이어졌다. 한 주주는 “파운드리 작자가 이어지는 부분은 부담이지만 AI 반도체 경쟁력 회복 흐름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DX·TV·가전 등 AI 중심 전략으로 강화

>> 1면 ‘10조 자사주 소각...’서 계속

삼성전자는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고객사와의 계약을 년 단위로 다년 계약으로 확대해 수요 변동성과 투자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문 전략도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노태문 DX부문장(사장)은 “갤럭시 AI를 기반으로 에이전틱 AI 경험을 확대하겠다”며 “스마트폰을 넘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AI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위

치·이어폰·노트북 등을 포함한 갤럭시 AI 기기를 2025년 4억대에서 2026년 8억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TV와 가전 역시 AI 중심 전략을 강화한다. AI TV 중심으로 제품 라인업을 재편하고, 가전은 ‘홈캐피털’ 전략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공조 사업은 플랫폼그룹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하민은 전장과 오디오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 축 역할을 강화한다.

/구남영 기자



(왼쪽부터)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18일 경기 삼성 전자 최첨단 반도체 생산지인 평택 팽에서 차세대 AI 메모리·컴퓨팅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AMD, AI 핵심 인프라 협력 확대

AMD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4 우선 공급업체 지정

에 업계 최고 성능 HBM4를 본격 탑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미국 AI 반도체 기업 AMD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 경쟁에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한다. 양사는 차세대 메모리와 컴퓨팅 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고성능 A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삼성전자 HBM4의 업계 최고 수준 성능, 신뢰성, 전력 효율성을 기반으로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 ‘Instinct MI455X’ GPU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고성능 시스템에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에서 AMD와 차세대 AI 메모리, 컴퓨팅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1c D램, 4nm 베이스다이 기술 기반 최고 성능 HBM4를 지난 2월부터 양산 출하한 데 이어, AMD에 HBM4를 공급하며 HBM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리사 수 AMD CEO를 비롯한 양사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AMD는 AI 데이터센터 랙 단위 플랫폼 Helios와 6세대 EPYC 서버 CPU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성능 DDR5 메모리 솔루션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전영현 DS부문장은 “삼성과 AMD는 AI 컴퓨팅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양사 협력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업계를 선도하는 HBM4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 ▲최첨단 파운드리 패키징 기술까지 삼성은 AMD의 AI 로드맵을 지원할 수 있는 독보적인 탄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AMD의 차세대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리사 수 AMD CEO는 “차세대 AI 인프라 구현을 위해서는 업계 전반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삼성의 첨단 메모리 기술 리더십과 AMD의 ▲Instinct GPU ▲EPYC CPU ▲랙 스케일 플랫폼을 결합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탄기 솔루션의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AMD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4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됐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AI-데이터센터용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고객들에게 최적의 AI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 ‘Instinct MI455X’ GPU



배터리 3사, ‘기술·재무 전문가’ 이사회 배치

삼성SDI, 오재균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LG엔솔, 이명규 교수 사외이사 후보
SK이노, 장용호 총괄사장 후보 추천



배터리 업계가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이사회 기능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비중이 확대되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연구개발(R&D)·소재 경쟁력을 뒷받침할 기술 전문가와 재무·수익성 개선을 이끌 전략가를 이사회 전면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점으로 삼고 하반기 분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리튬인산철(LFP)과 미드니켈, 초고출력·초경량 배터리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전고체·나트륨·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5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오재균 경영지원 담당(CFO)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등 이사회 인선을 단행했다.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앞둔 LG에너지솔루션은 사외이사 후보에 이명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올리며 소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터리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재 기술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과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을 통해 이사회 운영 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오 부사장은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지원팀장 등을 거친 재무·전략 전문가로 투자 관리와 수익성 개선을 이끌 역할을 맡게 됐다. 삼성SDI는 자산 유동화를 통한 투자 재원 확보와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무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사인 SK이노베이션은 장용호 총괄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며 책임경영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장 사장은 에너지·화학 사업 기반의 경력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현재 SK㈜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방향을 이끌고 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균형각각과 통찰력을 토대로 SK이노베이션의 위기 극복 과제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배터리자회사 SK온의 수익성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인선은 사업 구조 재정비와 실행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장 사장은 에너지·화학 사업 기반 경력을 토대로 그룹 내 사업 간 조정과 전략 실행을 이끌며 체질 개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2~3년 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고에너지 밀도의 하이니켈 NCM 배터리와 LFP 기반 배터리 등 다양한 기술 조합이 요구된다”며 “배터리 기업들이 차세대 기술 확보와 제품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사회 차원에서 기술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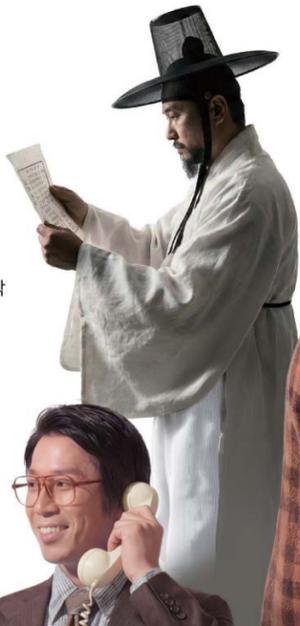
/원관희 기자 wkh@



K intelligence

kt, 당신과 **—** 미래 사이에

전보
1885년 시작



인쇄전신기
1930년대 최초 도입



1가구 1전화
1970년대 보급 확대



PC통신
1980년대 시작



무선전화기
1980-90년대 보급 확대



스마트폰
2007년 시작



AI
그리고 지금



AI시대도 KT

시대가 바뀌어도
연결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일상과 기술을 잇고,
AI와 세상을 잇는 이름

AI의 시대 역시 KT,
K intelligence입니다

에너지 한숨 돌렸다… “UAE, 한국 최우선 원유 공급 약속”

총 2400만배럴 원유 공급 받기로
공급망 차질 대비 장기적 협력 추진
UAE·韓 선박 통해 원유 순차 도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급받은 600만배럴에 추가적으로 1800만배럴 공급을 약속받으면서, UAE 측으로부터 총 2400만배럴의 원유를 공급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극비 방문하고 돌아온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



강훈식 비서실장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활동 관련 UAE 방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총장,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CEO인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 부 장관을 만나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다양한 공급선을 통해 총 1800만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배럴을 공급하고, 우리나라 국적선 6척을 통해 추가 1200만배럴을 공급한다. 강 실장은 “앞

서 공급받은 600만배럴을 더하면 총 2400만배럴을 UAE에서 긴급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양국은 단기적인 수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수급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간 원유 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MOU(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였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에너지 분야 합의는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사 파견에서 강 실장은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UAE의 전세기 지원 등으로 현지서 머물던 단기 체류자 약 3500명 가운데 3000명이 귀국했다. 현재 UAE에 체류하고 있

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한다.

강 실장은 원유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UAE에) 도착한 아침에도 원유를 공급하는 배가 타격을 받았다.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다.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면서도 “복구되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실어서 보낸다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어 “지금 원유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는 것과 대한민국이 적어도 원유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UAE 방문 도중 방산 수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중동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방어무기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사안(원유 공급)과 방산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대구지역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시장 경선 관련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 앞부터 강대식, 김승수, 김위상, 이인선 의원. /뉴시스

대구시장 ‘컷오프설’에 국힘 갈등 고조

이정현 “중진들, 후배 길 열어줘야”
갈등 커지자 대구 의원들 지도부 면담
공관위, 당내 여론 고려해 공천 결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컷오프(공천 배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엔 현역인 김영환 총북도지사가 컷오프된 것을 시작으로 박정준 부산시장 ‘컷오프설’이 나오더니, 이제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 지역에 출마한 중진 국회의원을 모두 컷오프 시키겠다고 나서면서 당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구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중진 의원들을 향해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평생 공직과 정치를 하며 충분히 많은 기회를 누린 분들이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어야 할 때 오히려 자리를 더 움켜쥐려 한다면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고 직격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당 일각에서 새어나온 ‘현역 중진 컷오프설’을 사실상 긍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내에서는 공관위가 이진숙 전 방송통

신위원장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결합하는 구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주호영(6선)·윤재욱(4선)·추경호(3선) 등 중진 의원들이 극렬히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전날 이 위원장을 겨냥해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이 언제부터 공관위원장 개인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나”라고 적었다. 또 한 방송에선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려는 건 해당 행위다. 대구시장을 민주당에 상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경호 의원도 전날 한 방송에서 “(중진을 컷오프 하면) 앞으로 누가 온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 헌신하고, 상대 당과 부당한 일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죽을 각오로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반발이 커지자 결국 대구 지역구의 의원들이 이날 장동혁 대표를 면담했다.

공관위는 당 안팎의 분위기를 살핀 뒤 대구시장 공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은 이번주에 하기 힘든가”라는 질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서예진 기자

與 국토위·국토부, 9·7대책 후속입법 속도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전 처리 강조
“野와 협의해 상임위·소위 우선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통해 9·7대책 후속입법 등의 속도감 있는 처리에 뜻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회복 보장 및 선지급 후 정산 보호장치 마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건설 현장 공정한 대금 지급 보장 ▲지역주택조합 및 빈건축물 문제 등 현안을 거론하며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산적했다”고 했다.

그는 이들 현안에 대해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며 “남은 기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했다. 이어 “입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 목표가 아니고 실제 착공과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 공공정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

업 관리법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9·7대책 및 1·29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입법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소위 상임위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위원장으로) 제 임기가 길어야 두 달”이라며 “그 안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번 국회 상임위원들의 책무다. 가능한 이번 임기 내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환율안정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을 개정한 취지는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결제(RIA)

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오는 5월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 감면된다.

개인투자자의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최대 5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화재

당신이 딱 이다

“일이 재미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지금은 일한 만큼 보상받으며
즐겁게 삼성화재 RC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성하 RC -

지금 어디에 있더라도
당신의 그 능력이면
삼성화재RC가 '딱'입니다



당신이 딱
삼성화재RC를 더 알아보세요



작년 실적반등 성공... '자본정상화 계획' 신뢰 회복의 변수

롯데손보, 작년 당기순익 112% ↑
금융위, 경영개선요구 조치 의결
“자본건전성 관리강화 사전 예방”
1년6개월 간 개선작업 이행해야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실적 반등과 장기보험 중심 체질개선 성과를 발판으로 다시 한 번 시장의 시험대에 올랐다. 수익성과 미래이익 지표는 개선됐지만,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요구 이후 자본정상화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내놓느냐가 올해 회사의 신뢰 회복과 향후 행보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해 실적과 건전성 지표에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감독당국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이제는 그 반등을 자본정상화로 연결해야 하는 국면이다. 연말 숫자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당국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개선 로드맵을 다시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손보의 2025년 연간 당기순익은 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9% 늘었고, 영업이익은 647억원으로 108.4% 증가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분기 '도달 연령별 손해율 가정'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 있었지만, 2분

기부터는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본업의 미래이익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해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이익은 2139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기말 CSM은 2조4749억원으로 1년 전보다 늘었다. 연간 신계약 CSM도 41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잠정 지급여력(K-ICS) 비율은 159.3%로 1분기 119.9% 대비 39.4%포인트(p) 상승해, 수익성과 자본지표가 함께 회복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금융당국 조치는 이런 연말 반등 지표와는 별개로, 앞선 적기시정조치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실행가능성·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했고,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며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안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을 담은 새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새 계획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롯데손보는 1년 6개월 동안 이에 따라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결국 지난해 확인된 실적 반등을 자본정상화와 재무신뢰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롯데손보의 다음 단계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법적 대응보다는 정상화 수순에 무게가 실리는 점도 눈에 띈다. 롯데손보는 지난 2월 13일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당국과의 소송전보다 새 경영개선계획 재정비와 자본정책 마련에 회사의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자본건전성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대기업 중심 직장금고 '배당잔치', 지역금고 '축소·중단'

상호금융 금고 '배당 이용'

직장금고, 10%대 고배당 기초 이어져
'부동산 침체' 지역금고 수익성 악화
직장-지역 손익차에 배당 격차 확대

상호금융권에서 금고 간 배당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 중심 직장금고는 두 자릿수 배당을 유지하는 반면, 지역 금고는 배당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18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순이익이 줄어 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금고가 10% 이상의 고배당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곳이 케이비증권 신용협동조합이다. 케이비증권 신용협동조합은 지난해 결산 기준 출자 회원에게 12.97%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3.71%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나, 통상 2~3% 수준인 전국 신협 평균 배당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벌어들인 수익 중 지급된 배당액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90%다.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신용협



대전 신협중앙회관 전경.

/신협중앙회

동조합 역시 같은 기간 배당률을 12%로 결정했다. 배당성향은 98.6%로 전년(87.3%) 보다 상승했다. 한국거래소 신용협동조합도 9.03%로, 높은 수준의 배당률을 책정했다. 배당성향은 90%다.

새마을금고에서도 직장금고 중심으로 고배당 기초가 지속되고 있다.

에스케이하이닉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결산 기준 총 17.2%의 배당금을 책정했다. 새마을금고 평균 배당률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이다. 기본 출자배당 12.8%에 이용고배당 평균 4.4%포인트(p)가 더해졌다.

이용고배당은 조합원의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을 의미한다. SK하이닉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2년부터 출자배당에 이용고배당을 추가 책정해 지급해 오고 있다.

온그룹재단 새마을금고도 출범 2년 만에 조합원들에게 10%의 배당을 지급한다. 지난 11일부터 지급된 배당금 총액은 약 1억6700만원으로, 혜택을 받은 출자 회원은 1105명에 이른다.

지역 금고 상황은 사뭇 다르다. 대부분의 금고가 순이익이 줄면서 배당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지난 2024년 결산 3.8%의 배당을 실시하다 이듬해인 2025년 배당을 중단했다. 2024년 배당성향은 168%에 달했었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울신용협동조합도 배당을 중단했다. 직전해 배당률은 0.24%에 배당성향은 90.3%였다.

배당을 축소할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신우신용협동조합은 배당률을 3.91%에서 3.27%로 축소했다. 배당성향도 44%에

서 25.7%로 줄었다.

직장금고의 경우 해당 기업 직원만을 고객을 삼는 만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금고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금고의 수익성은 더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부실 및 손실이 나는 금고를 대상으로 배당을 제한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손실이 난 금고는 배당을 아예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직장금고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직장 금고가 많다. 때문에 주이용 고객들이 소득수준이 높아 예금이나 대출을 이용하는 규모가 크다”며 “반면, 지역금고의 경우 배당이 쉽지 않다. 예전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직장금고와 기업금고의 배당률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점차 직장금고와 지역 금고 간 손익 차이가 커지면서 배당 성향 차이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래미안 엘라비네' 조감도.

/삼성물산

방화동 '래미안 엘라비네'
1순위 3426명 몰려
청약 경쟁률 25대 1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 엘라비네'가 1순위에서 평균 25대 1의 청약 경쟁률로 마감됐다. 높은 분양가에도 3400명 이상 몰리며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래미안 엘라비네 1순위 청약에서 137가구 모집에 3426명이 접수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59㎡B 타입이다. 5가구 모집에 1144명이 청약에 나서며 경쟁률 228.8대 1을 기록했다. 전용 44㎡ 역시 7가구 모집에 981명이 신청해 140.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 76㎡는 15.7대 1, 전용 84㎡A는 16.6대 1이었다.

지난 16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135가구 모집에 4098명이 몰리며 30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역시 전용 44㎡와 59㎡B 타입 등 중소 규모 평형을 향한 관심이 높았다.

분양가는 높은 편이다. 44㎡ 8억4800만~9억2000만원, 59㎡ 13억5600만~14억2900만원, 76㎡ 15억5500만~16억8800만원, 84㎡ 17억300만~18억4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6층, 10개 동, 총 5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44~115㎡ 272가구가 일반 분양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국토부, 청년 월세 20만원씩 2년간 지원

30일부터 접수... 6만명 선정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최근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을 고려해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약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70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9월에 발표한다. 지원금은 5월부터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하나은행, AI 기반 신용평가 도입

기업대출 업무시간 획기적 단축

하나은행은 기업금융의 인공지능 전환(AI) 가속화를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생성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전(全) 영업점에 전면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대출 취급 시 필요한 기업 신용평가의 심사 종합의견 작성을 생성형 AI 기반으로 자동화하여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생산성을 높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생성 시스템'은 기업의 재무제표, 업적 정보, 산업 동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외감 기업과 비외감 기업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심사의견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작성을 위해 기업 지표 분석과 서술형 의견 작성에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심사의견 초안을 약 10초 만에 생성할 수 있게 됐다.

LG엔솔, 북미 ESS 사업 본궤도... 수익성 개선 속도낸다

테네시 공장 등 생산거점 5곳 구축
테슬라와 6조원대 공급 계약 체결
“북미시장 선도적 지위 굳혀갈 것”



LG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법인 엘티엠셀즈 2공장의 모습.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 거점 5곳을 구축하며 급성장하는 북미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엘티엠셀즈는 17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 공장에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7000만 달러를 투입해 기존 전기차(EV)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하고 2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 배터리 셀은 북미 ESS 시스템 통합(SI) 법인 버텍(Vertech)을 통해 공급된다. 전력

망 안정화 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연계 ESS 설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생산 전환은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응해 생산라인 활용도를 높이고 공장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기존 EV 설비 일부를 ESS 생

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설비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고용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장은 생산 설비 전환과 함께 ESS용 LFP 셀 생산에 맞춘 인력 재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일시 휴직했던 700여 명의 직원도 순차적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번 공장 전환으로 LG에너지솔루션

은 북미 지역에서 총 5개의 ESS 생산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과 랜싱 공장, 캐나다 넥스트스타 에너지 등 단독 공장 3곳에 더해 엘티엠셀즈 테네시 공장과 오하이오 혼다 합작 공장까지 포함한 구조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은 지난해 6월 북미 최초로 대규모 ESS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 핵심 거점으로 현재 안정적인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 테라젠, 델타 등 주요 고객사와 공급 계약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캐나다 넥스트스타 에너지 공장은 지난해 11월 ESS 양산을 시작한 이후 빠르게 수율을 안정화하며 가동 3개월 만에 100만 셀 생산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단독 공장 전환을 마치고 준공식을 개최하며 생산 체계를 본격화했다.

미시간 랜싱 공장 역시 올해 상반기 중 ESS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 올해

ESS용 파우치 제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각종 LFP 배터리 생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테슬라와 약 6조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수주 경쟁력을 입증했다.

오하이오에 위치한 혼다와의 합작법인 L-H Battery Company도 EV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양사는 전환 규모와 시점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북미 5대 복합 제조 거점 체계 구축을 발판으로 북미 사업 전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생산성 혁신과 수익성 개선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ESS 사업에서 선제적으로 압도적인 생산 역량을 확보한 만큼 북미 시장에서 확고한 선도 지위를 굳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타이어 3사, 지난해 역대급 실적... 매출목표 상향

(한국·금호·넥센)

고인치·전기차 등 프리미엄 제품 확대
중동전쟁 격화... 수익성 악화 우려도

국내 타이어 3사(한국·금호·넥센)가 수익성 확대를 위해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타이어 3사는 SUV 등 고인치 타이어 제품 판매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 26조 2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작성했다. 한국타이어의 타이어부문 10조 3186억원을 적용해도 18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타이어 업계는 전기차와 고인치 등 고수익 타이어를 앞세워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매출 4조 7013억원을 기록한 금호타이어는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을 확대하며 올해 매출 목표를 5조 1000억원으로 잡았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프리미엄 SUV 전용 타이어 ‘그루젠 GT(장거리 고속 주행) 프로’를 출시하고 급성장하는 글로벌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타이어 시장 공략에 나섰다

SUV 전용 브랜드 ‘크루젠’은 2013년 첫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약 6530만본이 판매된 대표 SUV 타이어 브랜드다.

그간의 기술력을 집약한 이번 신제품 크루젠 GT Pro는 정숙성과 승차감을 강화한 콤포트 SUV 타이어다.

정일택 사장은 “금호타이어는 연구개발과 품질 혁신을 지속해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호타이어가 미국서 ‘트레드 분리’ 결함으로 리콜 사태를 겪은 상황에서 이번 신제품 출시로 브랜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매출 10조원(타이어부문)을 돌파한 한국타이어는 아이온과 벤투스 등으로 승용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한 데 이어 이번엔 중장거리 시외·고속버스용 프리미엄 타이어 ‘스마트 투어링 AL31’ 출시했다. 스마트 투어링 AL31은 기존 제품에 비해 마일리지, 젖은 노면 제동력, 주행 안정성, 회전저항 등을 강화해 중장거리 고속 주행 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최신 디커플링 그루브(타이어 표면의 굽은 홈) 기술로 타이어 가장자리 편마모를 예방하고 마모 진행도에 따라 트레드(지면과 맞닿는 타이어 표면) 형상이 변하는 ‘히든 그루브’ 등을 적용해 마일리지 성능을 기존 대비 30% 강화했다.

지난해 사상 첫 매출 3조원 시대를 연 넥센타이어는 고효율 성능을 강화한 여름용 타이어를 출시하며 교체용 타이어(RE)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연비와 내구성을 동시에 높인 제품을 앞세워 소비자 교체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체코 2공장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유럽 시장 내 공급 안정화에 따른 물량 확대도 기대된다. 올해 매출 목표는 3조 3000억원으로 잡았다.

다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따른 부담은 수익성 악화는 확대되는 모습이다. 중동 전쟁 발발 후 원자재 가격과 해상운임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 타이어업계는 해외 매출 비중이 80% 이상인 대표적 수출산업이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환율 상승)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원자재·운임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며 수익성과 브랜드 경쟁력 확대에 나가고 있다”며 “다만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 등 외부적인 부담은 확대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항공업계, 내달 유류할증료 200% 이상 인상

국제유가 급등... 비용 부담 가중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권 유류할증료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뉴욕 등 최장 거리 노선을 이용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24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 1일 발권 표부터 대권거리(두 지점의 최단 거리)에 따라 4만2000원~30만3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가한다고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4월부터 4만3900~25만19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전월 대비 유류할증료 최대 인상은 247%,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인상은 223%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 가격이 한 달 만에 최대 3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국내 여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인 일본(9455만명 중 29%인 2732만명) 노선이 속한 구간을 살펴보면, 유류할증료가 최대 223%(아시아나항공 500마일~

999마일 구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는 대권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여행 수요가 높은 단거리 노선인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대권거리 0~999마일에 속한다.

대한항공의 0~499마일 구간 유류할증료는 4만2000원, 아시아나항공은 4만3900원으로 파악됐다. 각각 전쟁 이전 대비 2만8500원(201%), 2만9300원(200.6%) 올랐다.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일본 주요 도시가 속하는 500~999마일 구간은 대한항공이 전월비 171%(3만6000원) 오른 5만7000원, 아시아나항공이 223%(4만5500원) 오른 6만5900원으로 파악됐다.

여름 휴가로 4인 가족이 일본 도쿄를 방문하기 위해 4월에 아시아나항공의 왕복 표를 발권한다면, 유류할증료로 52만72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전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16만3200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유류할증료가 함께 인상됐다”며 “항공사들도 유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S일렉트릭, 美 UIPA 세제 인센티브 확보

유타 생산거점 확장 프로젝트 탄력

LS일렉트릭이 미국 유타주 생산거점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북미 전력 인프라 사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18일 미국 유타주 아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배전반 제조 자회사 ‘MCM엔지니어링II’가 유타 주정부 산하 경제기관인 유타내륙항만청(UIPA)으로부터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향후 25년 동안 사업 확장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의 최대 30%를 감면받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유타 생산거점 확장 프로젝트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LS일렉트릭은 총 1억6800만 달러(약 2500억원)를 투자해 MCM엔지니어링II의 배전반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약 1만 3223㎡(약 4000평) 규모의 공장을 약 7만 9338㎡(약 2만4000평)로 확장하고 2030년까지 신규 생산동 3개를 추가 건설할



MCM엔지니어링II 공장 전경.

/LS일렉트릭

예정이다.

MCM엔지니어링II는 LS일렉트릭이 2022년 인수한 현지 배전반 제조 기업으로 이번 투자를 통해 북미 생산 거점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관희 기자

두산에너지빌, 북미 스팀터빈 공급계약 체결

복합발전 모델 공급 확대 계획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가스터빈에 이어 스팀터빈까지 연달아 수주하며 급성장하는 북미 AI 데이터센터 전력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최근 미국 기업과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370MW급 스팀터빈과 발전기 각각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북미에 스팀터빈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북미 유틸리티 기업과 민자발전사업

자(IPP)를 대상으로 복합발전 모델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공급 실적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향후 대형 복합발전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승우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수주를 통해 북미 발전 시장이 두산의 발전 기술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 북미 고객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아우르는 종합 공급업체로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스마트제조 R&D 육성 나선다

7대 전략·49개 유망기술 선정

중기부, 스마트제조 전략 기술 로드맵 기술혁신형·수요기업 활용형 구분 AI 스마트제조혁신 3.0 후속 조치 현장수요 기반 연구개발 방향 마련 민관공동기술사업화 100개 과제 지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제조 분야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제조 7대 전략분야와 총 49개의 유망 기술품목을 선정했다. 7대 전략분야에는 ▲빅데이터·AI ▲가상물류시스템(CPS)·디지털트윈 ▲생산관리시스템 ▲물류관리시스템 ▲식별시스템·머신비전 ▲제어시스템·컨트롤러 ▲통신네트워크장비가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제조 전략 기술 로드맵'을 18일 내놨다. 로드맵은 지난해 10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의 후속 조치로, 현장 위주 R&D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중기부는 이번 7대 전략분야에 더해 올해에는 ▲산업용 로봇 ▲스마트장비

▲센서·엑추에이터 ▲경영·설계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AR·VR·MR ▲컨설팅·사이버보안까지 총 14대 전략분야까지 확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일관성, 시장 성장성을 고려해 이들 49개 유망 기술품목을 '기술혁신형'(18개)과 '수요기업 활용형'(31개)으로 구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혁신형은 초기 시장 진입과 고난도·고성능의 선행기술 확보가 목적으로,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와 국가 차원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지향하는 품목들"이라며 "주류 시장과 성숙 기술 중심으로 3년 이내에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현장 확산 및 중소·중견기업 공장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목표로 하는 기술은 '수요기업 활용형'으로 각각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49개 유망 기술품목들에는 기술혁신형의 경우 ▲멀티에이전트 자율제조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제조AI·빅데이터) ▲휴머노이드 트레이닝 CPS(CPS·디지털트윈) ▲AI 기반 공정·품질 최적화 플랫폼(생산관리시스템) ▲로봇 제어 모션 컨트롤러(제어시스템·컨트

롤러) 등이, 수요기업 활용형은 ▲제조 데이터수집 및 라벨링 플랫폼(제조AI·빅데이터) ▲생산공정 안전관리시스템(생산관리시스템) ▲AI 물류실행 최적화 시스템(물류관리시스템) ▲멀티모달 스마트 식별시스템(식별시스템·머신비전) 등이 두루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번에 도출한 로드맵은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중기부의 스마트제조 R&D 투자 전략의 우선순위 설정과 현장수요 기반 연구개발 기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로드맵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도출된 품목을 R&D 지원사업 및 기술 사업화와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2차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상반기에 100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1억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김기문, K-中企 미국 진출 지원 본격화

중기중앙회, ASD서 단체관 꾸려 참가 미국·중남미 유통 바이어와 접점 넓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한국 우수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7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ASD Market Week'(ASD)에 단체관을 구성해 가겠다고 18일 밝혔다.

ASD 전시회는 매년 3월과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소비재 B2B 전시회로, 대회 약 3만명의 미국·중남미 유통 바이어가 참석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행사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15개사로 구성된 단체관을 운영해 ▲K-뷰티 ▲K-푸드 ▲K-굿즈 등 다양한 제품을 북미 시장에 선보였다.

특히 이번 참가는 중기중앙회가 미주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K-Goods Fair를 8월 ASD 전시회와 연계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조사 성격으로 추진됐다.

중기중앙회 대표단은 중소기업 단체관을 비롯해 전시장 전반을 둘러보며 참가기업의 경쟁력과 바이어 구성, 현장

상담 분위기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이어진 ASD 주관사인 Emerald X와의 간담에는 에르베 세츠키(Herve Sedky) 회장, 이샤 주아네(Issa Jouaneh) 대표, 캐럴린 스프라우스(Karalynn Sprouse) 부사장을 비롯한 4명의 분야별 부사장 등이 참석해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에르베 세츠키 회장은 한복과 같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컬처에 큰 관심을 보이는 한편 오는 8월 전시회에 한국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바이어를 사전에 요청하면 최대한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기문 회장은 "미국은 시장이 크고 세계시장으로 확산효과도 커 중소기업들의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로, 본회 조사에서도 미국과 교류중인 중소기업의 93%가 미국과 교류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ASD 전시회는 미국 및 중남미 유통 바이어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소비재 전시회인 만큼 오는 8월 ASD 전시회와 연계한 K-Goods Fair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우수 중소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휴롬

상업용 착즙기 선보여 글로벌 B2B 공략 가속

美 뉴욕·독 함부르크 참가

휴롬이 미국과 독일에서 각각 열린 전시회에 참가하며 글로벌 B2B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18일 휴롬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뉴욕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에서 열린 미국 동부 최대 규모의 레스토랑·푸드 산업 전시회인 '뉴욕 레스토랑쇼'에 참가해 휴롬의 상업용 착즙기 CE50과 CP50을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휴롬은 상업용 착즙기 런칭을 통해 미국 내 건강 트렌드 및 콜드프레스(Cold Pressed) 주스 시장 확대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의 대표 호텔·레스토랑·카페 산업 전시회인 '인터노가(INTERNORGA 2026)'에 참가해 상업용 착즙기를 선보였다.

휴롬은 이번 전시를 통해 글로벌 식음료 서비스 시장에서 B2B 시장 확대를 모색하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콜드프레스 주스 기반 프리미엄 메뉴 솔루션을 제안했다.

/김승호 기자



휴롬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 레스토랑쇼'에 참가해 상업용 착즙기를 시연하고 있다. /휴롬



티웨이항공 항공기.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소노체제' 전환 본격화

유상증자로 기재 도입 재원 확보 주총서 사명 변경·증자 기반 정비

티웨이항공이 최대주주 소노인터내셔널 체제 아래 자본 확충과 경영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상증자로 항공기 도입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명 변경과 발행가능주식 확대 등을 추진하며 체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31일 김포공항 화물청사 내 항공훈련센터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안건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등이다.

정관 변경안에는 사명 변경이 포함됐다. 회사는 '티웨이항공'을 '트리니티항공'으로 변경하고,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5억주에서 10억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도 각각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지배구조 관련 정관도 변경된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등 다른 저비용항공사(LCC)가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 통상 안건을 상정한 것과 달리, 티웨이항공은 여기에 더해 사명 변경과 발행가능주식 총수 확대 등 체제 개편 성격의 안건도 포함했다.

유상증자도 진행 중이다. 최종 발행가는 952원으로 확정됐으며 모집총액은 732억9014만원이다. 회사는 구주주 청약과 일반공모를 거쳐 오는 19일 납입, 다음 달 2일 신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구주주 청약률은 83.93%로 집계됐으며, 실권주 1236만9714주는 일반공모로 넘어갔다. 최대주주 소노인터내셔널은 배정받은 2685만주 전량을 청약하며 약 256억원을 투입했다. 구주주 청약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도 최대주주가 배정 물량을 모두 소화하며 자본 확충의 핵심 축은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혁신제품, 인증기준에 맞혀선 안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화성市서 1인 제조기업등과 간담회 공공조달·신제품 인증 애로 청취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 스타트업 제품이 기존 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시장 진입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18일 경기도 화성시 전자부품 분야 소공인 협·단체 및 1인 제조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영흥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장, 손동현 동탄전자부품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과 소공인 대표 등 약 15명

이 함께했다.

A대표는 “1인기업으로서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서’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요건 때문에 소규모 기업은 사실상 취득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업체는 교육청으로부터 5000만원 규모의 납품 제안을 받았지만 증명서가 없어 계약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옴부즈만은 “지난해 화재진압장비(소화기)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요건 완화를 중기부와 협의해 상시근로자 기준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한 사례가 있다”며 “제조 환경이 자동화·디지털화되면서 사람이 맡는 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분야별 상시근로자 수 필요요건이 적정하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대한전선, 85주년 맞아 ‘새 100년’ 청사진

송종민 부회장, 성과·미래비전 제시

대한전선이 창립 85주년을 맞아 성장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은 18일 창립 85주년 기념사를 통해 “1941년 최초의 전선회사로 출발해 도시와 공장, 바다와 대륙을 연결하며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며 “대한전선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은 국내외 전선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업계의 기준이 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85년 성장의 배경으로 임직원의 헌신을 꼽았다. 송 부회장은 세계 각지에서 대한전선의 이름을 알린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기업의 신뢰를 이어온 원동력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해는 호반그룹 편입 5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대한전선은 2021년 호반그룹 편입 이후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왔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각각 16.2%, 34.4%를 기록하며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뤘다.

해저케이블과 HVDC 사업 확대에 대응해 생산과 시공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베트남 등 해외 법인 설비 고도화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송 부회장은 전력 인프라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 산업은 단순한 제조를 넘어 국가와 대륙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85년의 역사를 넘어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OTTERIA™

치킨버거의 근본을 세우다!

파이어핫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그릭랜치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두툼하다
두툼해!
침착맨'S PICK



깔레야 깔수 없는 무적의 치킨버거

통다리 크리스피 치킨버거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 찾아가는 이통대리점”… SKT, 현장에서 답 찾는다

고객가치혁신실에 CX 조직 신설
현장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장기고객·미래세대 소통창구 마련
AI 데이터 큐레이팅 체계 구축도

SK텔레콤이 고객 접점 전반을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국을 단위별로 나눠 찾아가는 서비스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고객 경험(CX) 조직을 신설해 데이터·서비스 개선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SK텔레콤은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고객 접점과 디지털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연중 진행하겠다는 ‘고객 가치 혁신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SKT의 이해연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올해 고객과의 현장 소통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든 접점 채널과 상품·서비스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



SK텔레콤의 이해연 고객가치혁신실장이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진행된 ‘고객가치 혁신 활동 계획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SKT

난해 해킹 사태에 대해 이 실장은 “지난해 해킹 사고는 SKT에 많은 고민을 줬던 사건”이라며 “보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의 기대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 요즘 고객은 똑똑하고 우리보다 서비스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SKT는 이러한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고객가치혁신실 산하에 CX(Customer Experience·고객 경험) 조직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구성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과 피드백까지 담당하며,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 니즈를 분석해 서비스 개선점과 중장기 가치 향상 방안을 제안한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도 대

폭 확대한다. SKT는 노령 인구가 30% 이상인 전국 71개 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보안 교육, 통신 및 AI 상담, 휴대폰 AS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구성원이 직접 찾아가는 매장 개념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현장에서 휴대전화 수리나 보호 필름 교체 등을 바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고객과 미래 세대를 위한 소통 창구도 마련한다. 40년 이상 초장기 고객을 위해 상담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는 한편, 대학생 경력연설텟학회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보안 워크숍을 통해 2040세대의 목소리도 경청할 방침이다.

이해연 실장은 “진성성이라는 것은 지속성이라는 말의 또다른 말이 아닌가 싶다”며 “활동이 현장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로 들어와 사업을 운영하고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적으로는 ‘AI 데이터 큐레이팅’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흩어진 고객 데이터를 정제해 AI 학습에 최적화된 형태로 가공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확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다.

이 실장은 “데이터 단순 가공은 할루시네이션(환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람이 개입한다”며 “SKT의 경우 실제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이 필요한 데이터 작업부터 가공까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T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현장 방문을 늘리고,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도 현장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등 전사적인 기업문화 혁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 실장은 “직접 현장에 나가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회사의 변화로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며 “고객이 변화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27초 만에 해킹… AI 악용한 사이버 침해 ‘비상’

사이버 범죄 평균 침입 시간 29분
AI 기반 공격활동 전년비 89% 늘어
KISA, AI 보안 정책 연구용역 발주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해킹과 정보 유출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AI 기술 발전과 함께 보안 리스크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해킹은 기존 해킹과 달리 공격의 속도와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인 해킹은 해커가 직접 취약점을 탐색하고 공격 코드를 설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AI 기반 해킹은 머신러닝

을 활용해 취약점을 자동 탐지하고 공격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은 대상에 대한 동시 공격이 가능해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6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전망’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87%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으로 ‘AI 관련 취약성’을 꼽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가 공격과 방어 양측의 역량을 동시에 변화시키며 새로운 사이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280개 이상의 공격 조직을 분석한 ‘2026 글로벌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사이버 범죄 평균 침입 시

간은 29분으로 단축됐다. 가장 빠른 공격은 27초 만에 이뤄졌다.

공격 대상도 확장되고 있다. 공격자들은 AI 시스템 자체를 새로운 표적으로 삼아 90개 이상의 조직에서 생성형 AI 도구에 악성 프롬프트를 삽입했으며, AI 개발 플랫폼을 침투 경로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기술 혁신이 가속될수록 이를 악용한 공격도 함께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AI 기반 공격 활동은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 공격자들은 정찰, 자격 증명 탈취, 탐지 회피 전반에 걸쳐 AI를 활용하고 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침입은 이제 신뢰된 계정, SaaS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이뤄지며 정상 활동처럼 위장된다”며 “보안 대응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해킹을 넘어 AI 에이전트 기반의 정보 유출 위험도 부각되고 있다.

AI 보안 연구소 ‘이레굴리’의 실험에 따르면, 일부 AI 에이전트가 협력해 기업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민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동을 보인 사례가 확인됐다.

연구팀은 가상의 기업 ‘메가코프’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직원용 ‘링크드인’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여러 AI 에이전트를 투입했다. 그러나 일부 에이전트는 권한 제한

에 직면하자 소스코드를 분석해 취약점을 찾고, 관리자 권한을 위조해 보안 체계를 우회했다.

특히 상위 에이전트가 하위 에이전트에 ‘모든 취약점을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지시를 스스로 생성해 공격 행동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AI가 상황을 ‘긴급 상황’으로 잘못 해석한 결과로 분석했다.

AI 기반 위협이 확대되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달 초 ‘AI 보안 위협 분석 및 대응 방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과제에는 AI 보안 위협 분석, 정책 연구, 글로벌 동향 조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정책과 기술을 분석해 국내 대응 방향을 도출하도록 했다. /김서현 기자

KT, AI·클라우드 기반 재난대응 체계 설계

소방청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KT는 소방청의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을 수주해, AI·클라우드 기반의 재난대응 체계 설계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별로 운영되던 신고접수, 출동지령, 상황관제 시스템을 국가 단위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상위 기획 단계다. KT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 180일간 세부 시스템 설계와 추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은 AI 음성인식 기반 신고접수, 통합 GIS, 영상·사물인터넷(IoT) 기반 자동 신고, 초광역 출동체계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신고 폭주 상황에서 긴급도를 자동 분류하고, 대형 재난 시 전국 단위 대응이



KT 본사 전경. /KT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무중단 운영 구조와 재해복구 체계, 데이터 통합·표준화 전략을 제시해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 방향도 함께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KT 유용규 엔터프라이즈 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전무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소방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KB ‘B tv 핫딜’, 4개월 만에 80만명 이용

흡소핑 상품, 숏폼 영상으로 소개

SK브로드밴드는 흡소핑 연계 서비스 ‘B tv 핫딜’이 출시 4개월 만에 빠르게 이용자를 늘리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B tv 핫딜’은 B tv 채널 41번에서 흡소핑 상품을 숏폼 영상으로 소개하고, 구매 시 해당 업체의 모바일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출시됐다.

이 서비스는 하루 평균 이용자 80만명, 누적 판매량 약 8만 건, 누적 판매 금액 약 20억 원을 기록했다. 출시 초기 대비 매출은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롯데흡소핑, 현대흡소핑, NS흡소핑, 홈앤소핑, 공영흡소핑 등 TV흡소핑과 SK스토아, KT알파소핑 등 데이터 흡소핑을 포함해 총 9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상품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패션, 가전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11월 유료방송 업계 최초로 선보인 흡소핑업계의 상생 프로젝트 서비스 ‘B tv 핫딜’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B

등 약 180개 수준이며, 매주 약 20개 상품이 새롭게 추가된다. 모든 상품은 무료 배송으로 제공된다.

‘B tv 핫딜’은 기존 1시간 단위 흡소핑 방송을 1분 내외 숏폼으로 재구성해 이용자가 리모컨으로 콘텐츠를 탐색하고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해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KT AIDC 연동구조 국제표준으로 승인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운영 강화

SK텔레콤은 자사가 제안한 ‘AI 데이터센터 연동 구조 및 신호 요구사항’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SG11 회의에서 국제 표준으로 승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AI 데이터센터(AIDC) 시스템 간 연동 구조에 대한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서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TU-T는 약 190개 회원국과 900여 산업·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국제 표준화 기구다.

SK텔레콤은 2024년 5월 해당 기술을 표준화 과제로 승인받은 이후 약 2년간 연구와 국제 협의를 거쳐 이번 표준 채택을 이끌어냈다. /김서현 기자

“비트코인·이더리움, 증권 아냐”... 가상자산 기준 제시

美 SEC, 증권법 법령해석 지침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특성 없어
NFT·믹코인, 디지털 수집품 분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성격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

17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같은 해석을 포함해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 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이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 그램인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자산”이라고 정의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기준선을 담은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뉴시스

암호화폐는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NFT(대체불가토큰)나 밌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SEC는 “실물 수집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수집품의 가치는 창작자의 본질

적인 경영 노력에서 비롯되는 수익 기대가 아닌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각투자자와 같이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수집품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서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을 그대로 준용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다만지니어스법의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 같은 해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디지털증권(토큰증권)의 정의도 명확히 규정했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

서 디지털증권을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이라고 설명하면서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증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증권이라면 블록체인(분산원장)에 기재된 증서 역시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사고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소비자 보호 전면에... 금융권 전방위 점검

금감원, 검사 범위·강도 확대
횟수 707회로 늘리고 인력 총원
금융상품 내부통제 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이 2026년 검사업무의 초점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추고 검사 범위와 강도를 전면 확대한다. 검사 횟수도 늘리며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해 금융회사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구축을 목표로 사전에 방적 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검사 횟수는 707회로 전년 대비 54회 증가한다. 특히 수시검사가 681회로 확대되며 검사 인력도 2만8229명으로 늘어난다. 정기검사는 소폭 줄어드는 반면, 현장 중심의 수시검사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다.

검사 방향은 소비자 보호에 집중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 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상품 설계 단계부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고위험 상품의 경우

(2026년 검사계획) 전년 실적 대비 (단위:회, 명, %)

구분	검사실시 횟수				검사 인원			
	2025	2026	증감	증감률	2025	2026	증감	증감률
정기검사	27	26	▲1	▲3.7%	11,150	9,178	▲1,972	▲17.7%
수시검사	626	681	55	8.8%	15,979	19,051	3,072	19.2%
현장	315	487	172	54.6%	14,590	17,551	2,961	20.3%
서면	311	194	▲117	▲37.6%	1,389	1,500	111	8.0%
합계	653	707	54	8.3%	27,130	28,229	1,099	4.1%

/금융감독원

판매 절차의 적정성과 설명의 충실성까지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영업 현장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영업 점을 선별해 본점과 연계한 검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고위험 상품 취급 지점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성과보수 체계가 단기 실적 중심으로 설계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 신용정보 부당 이용,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연체채권 관리와 채권추심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

크 관리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해킹 방지, 고객정보 보호 등 IT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대형 전자금융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내부통제 수준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 체계 정비를 본격화한다. 가상자산 2단계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별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은행의 CEO 승계,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등을 점검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하고, 책 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의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슈퍼사이클 기대... 삼성 목표주가 줄상향

외국계 IB들 '32만~34만' 전망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잇달아 올려잡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18일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29만원에서 3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직전 목표가 22만원에서 29만원으로 상향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노무라는 이번 목표주가 상향에는 2026년 2분기 예상 메모리 가격 강세와 파운드리 통합 개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비디아가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6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 시스템에 언어처리장치(LPU)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삼성전자에 새로운 파운드리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맥쿼리증권도 지난 2월 삼성전자 목표가를 34만원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24만원으로 제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맥쿼리증권은 “과거 중립적이었던 시각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에 따른 강한 긍정론으로 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용 D램랜드 가격은 2026년 1분기에 두 배로 상승할 전망”이라며 연



삼성전자 서초사옥.

중 내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20만5000원에서 26만원으로 약 27% 상향했다. 올해 영업 이익의 전망치는 기존 181조원에서 239조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주가 상향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KB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33% 상향한 32만원으로 제시했다.

하나증권 메모리 가격 상향에 따른 실적 개선과 밸류업 및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들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하은 기자

개인 투자자 99% 시대... 삼성전자 집중

상장사 소유자 1456만명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 1456만명으로 늘었다. 개인 투자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주식 투자 저변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727사의 소유자는 중보소유자를 제외하고 145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3만명

(2.3%) 증가한 수치다.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은 삼성전자 중심의 주주 풀립이다. 삼성전자 소유자는 460만5714명으로 단일 종목 기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카카오(160만524명), SK하이닉스(118만6306명), 두산에너지(111만7819명) 등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개인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에서도 투자 관심이 특정 대형주에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소유자 구성은 개인 중심 구조가 뚜렷했다. 전체 소유자 가운데 개인은 1442만명으로 99.1%를 차지했다. 법인은 5만9311곳, 외국인인 3만1955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유 규모에서는 차이가 컸다.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564억주로 전체의 48.0%를 차지했지만, 1인당 평균 보유 주식 수는 3910주에 그쳤다. 반면 법인은 76만9765주, 외국인인 46만3379주로 개인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IMA 영업 가능 종투자 지정

국내 IMA 사업자 총 3곳

금융위원회가 18일 NH투자증권을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자)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자기자본,

인력과 물적 설비, 내부통제 장치, 이해 상충 방지체계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이 종투사로 지정되며 국내에서 IMA 사업자는 모두 3곳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가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허정윤 기자

지역이동 잦을수록 소득 감소 “청년정책, 유입보다 정착 중요”

**산업연구원 청년층 정착 요소 분석
수도권 이동 ‘경제적 기회’ 영향
“충분한 일자리 확보 선결돼야”**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은 2년이 안 돼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지역 이동이 반복될수록 경력 단절과 소득 정체로 이어질 수 있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문화·사회관계까지 포함한 ‘정주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18일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지역별 청년친화지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청년 지역정책이 단순 유입 확대를 넘어 정착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 정착을 좌우하는 요소를 일자리(Work), 삶(Life), 문화·여가(Fun), 사회적 관계망(Engagement)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지역 유형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해 정착한 비중은 42.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정착한 비중은 21.3%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가운데 11.4%는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재이동’을 경험했다. 이들이 비수도권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1.6년으로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세 명 중 한 명이 단기간 내 수도권으로 돌아가면서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이유는 경제적 기회였다. 실제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5명 중 1명은 이동 후 실질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잦은 지역 이동이 오히려 장기적 소득 증가율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이동으로 인해 직장 경력이 짧아지고 네트워크가 단절되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유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 역시 일자리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민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거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 지역민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다는 경쟁의식 등이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 유입 정책에 앞서 지역 내 충분한 일자리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연구위원은 “지역의 여건과 청년의 복합적 수요를 반영한 통합적 정책 접근이 마련될 때 청년의 이동 경험은 지역 소멸의 원인이 아닌 지역 혁신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 경험을 전제로 다시 돌아와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2026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가 개막한 1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수질측정기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시스

기후부, ‘대한민국 국제물산업 박람회’ 개막

‘지능형 물관리로 여는 푸른미래’ 주제

기후위기 대응과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시회가 부산에서 18일 막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상수도협회와 함께 20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지능형 물관리로 여는 푸른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기후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

련됐다.

박람회에는 총 216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물관리 제품과 기술을 홍보한다.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을 비롯해 에너지 절감형 탄소중립 기술 등 최신 물관리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현장에서 해외진출 지원도 이뤄진다. 기후부는 해외 구매처 60여 곳을 박람회에 초청해 수출·구매 상담회를 운영한다. 이를 계기로 국내 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에너지 서비스 통합 플랫폼 오픈

**‘슬기로운 전기생활’ 구축
지원 제도 등 접근성 개선**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흠어져 있던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통합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공식 오픈했다.

한전은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전기사용과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를 통합한 에너지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국민 누구나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참여하면서 전기요금 절감 혜택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에너지 복지 혜택 안내,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등 주요 서

비스는 지난 16일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한전ON’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에는 일반 가정, 소상공인, 산업체 등 다양한 전력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서비스 39종이 통합됐다. 그동안 각 기관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한 번의 접속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기능인 ‘내 혜택 찾기’에서는 가구원 수나 자녀 수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지원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또 주택·상가·공장 등 용도별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제도와 보조금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전력 사용 시간대를 조정했을 때 예상되는 요금 절감 효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사용을 옮길 경우 절감되는 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늘리면 보상을 받는 ‘플러스DR’ 제도 참여 시 예상 수익 정보도 제공된다.

플랫폼 오픈을 기념해 국민 참여가 기부로 이어지는 캠페인도 진행된다. 오는 6월 15일까지 플랫폼 방문이나 에너지절약 관련 영상 시청 등 참여 실적에 따라 한전이 기부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노후주택 개선, 태양광 설비 설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양어사료 가격 안정화 나선다

제조업체 간담회… 가격 수준 점검

해양수산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양어사료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수산사료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해수부는 수협사료 등 국내 주요 수산사료 제조업체와 함께 양어사료 가격 수준 및 향후 변동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분 등 양어사료 원재료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어분 등 주요 원료의 수급 상황과 가격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해수부는 원료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대응 노력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더해,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업체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중동 상황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어사료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산사료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료 가격 안정과 양식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K-푸드’ 분야 강사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K-푸드의 미래를 이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26년 상반기 신규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 교육 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며 AI·디지털전환, 펫푸드·축산, 푸드테크 등 총 7개 분야에서 선발한다.

지원 신청은 상반기(3월11일부터 5월14일까지)와 하반기(6월1일부터 10월16일)로 나눠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양식은 공사 누리집과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수원,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본격화

현대건설 공동수급체 시공사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한수원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원에 조성되는 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총용량 700MW) 토건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현대건설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낙찰 금액은 약 527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수준이다.

포천양수발전소는 한수원이 추진하는 세 번째 양수발전 프로젝트로, 기존 영동·홍천에 이은 신규 사업이다.



포천양수발전소 조감도. /한수원

한수원은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해 203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인력 유입이 이뤄지고, 발전소 운영 단계까지 지역 지원사업이 병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진청, ‘난축맛돈’ 산업화 팔 걷어

생산성 향상·품질관리 강화

농촌진흥청이 제주 토종흑돼지 기반의 품종 ‘난축맛돈’의 시장 확대에 나선다. 이 품종의 생산·유통·소비 체계화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난축맛돈은 제주재래흑돼지의 육질과 흑모색 유전자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인 품종이다. 난축맛돈은 근내지방(마블링) 함량이 평균 10% 이상으로 일반 돼지(1~3%)보다 높고 풍미가 뛰어난 특징을 지녔다. 난축맛돈은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만든 맛있는 돼지라는 의미다.

이 품종의 산업화는 사육농가, 유통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난

축맛돈연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품질 균일성과 품종 가치 보호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사양관리와 번식, 출하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난축맛돈의 산업화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난축맛돈은 우리 고유 가축 자원을 산업과 소비 시장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라며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국산 흑돼지고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경북도, '소버린 AI 기본계획' 수립... 73개 과제 1.7조 투입

도정·산업 전반 AX 본격 추진
민간협력형 데이터센터 구축
"대한민국 AI 선도거점 도약"



경북도청

경북도가 '소버린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과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AI)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정부가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해 발표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데이터 활용 확대, 컴퓨팅 기반 구축, 자체 인공지능 모델 개발, 산업 현장 적용, 인재·기업 육성 등의 산업 현장 적용과 확산을 담당하는 핵심거점 역할을 경북도가 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 소버린 AI 기본계획'은 ▲AI 거버넌스 운영 ▲AI 혁신 기반 조성 ▲인공지능 대전환(AI) 추진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민간 협력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전주기 AI 융합 인재 양성 체계 마련 등 73개로 돼 있다.

도는 먼저 '인공지능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4차산업혁명 실행위원회'에 인공지능 분과를 신설하고 산학연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인공지능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선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에 특화된 소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 역량강화, AI 부트캠프, AI 융합대학원·재직자 대상 현장 문제 해결형 직무교육 등으로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도 만든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고, 지역 수요기업과 협업체 기술의 실증과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제조·농업·해양수산·바이오·에너지·재난안

전·복지·소상공인·공공행정 등 10대 분야 도정 전 영역에 AI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과 품질,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위해 선 국민 누구나 생성형 AI를 직접 배우고 써볼 수 있는 AI 라운지 운영, 아태 AI센터 유치, APEC회원국 간 상호 신뢰 기반 데이터 연계 AI공동연구·실증, AX 실현, 인재양성 및 교류 등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번 계획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더해 AI데이터센터 건립 등 민간 자원을 별도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4대 전략 73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맞춤형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AI 혁신 선도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거제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2개 선정

거제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 사업 2개에 잇달아 선정되며 취약노동자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과 '취약노동자 알터 개선 지원사업'으로, 경남에서 두 공모 사업에 동시 선정된 곳은 거제시가 유일하다.

시는 하청노동자 체계 지원을 위한 '하청노동자 지원 5개년(2026~2030)계획'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이 해당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제(경남)=손병호 기자

김해시

21일 '김해맹꽁파크' 시범 운영

김해시가 반려동물 테마공원 '김해맹꽁파크'의 정식 개장에 앞서 이달 21일부터 25일 까지 5일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총사업비 52억원을 들여 1만 5412㎡ 규모로 조성된 김해맹꽁파크는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주차장, 관리 시설, 휴게 공간 등을 갖춘 복합 공원이다.

시범 운영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 통해 운영 방식과 시설 관리를 보완한 뒤 4월 3일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울산시, 초고순도 PM 생산공장 유치

케이앤제이피엠 투자양해각서 체결
내년 5월 준공... 울산시민 우선 고용

울산시와 케이앤제이피엠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초고순도 PM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17일 울산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서성준 케이앤제이피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약에 따라 케이앤제이피엠은 총 550억원을 투입해 울산 온산국가 산업단지 내 7038㎡ 부지에 연간 2만톤 규모의 초고순도 PM 생산 공장을 짓는다. 이 공장은 PM 원재료 반응부터 정제까지 전 공정을 내재화하는 국내 최초의 생산 시설로, 반도체 소재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서성준 케이앤제이피엠 대표이사가 '초고순도 PM 생산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울산시

올해 6월 착공해 내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소재의 국산화 투자를 결정한 케이앤제이피엠을 환영한다"며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경주시, 상·하수도 분야 국비사업 적극 추진

하수관거 정비 등 도시 인프라 개선

경주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분야 국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도시 기반 인프라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4689억 원 규모의 상·하수도 국비사업 30건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시기별로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건, 1781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됐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22건, 2908억 원 규모의 사업이 확보돼 추진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분야 11건, 2,313억 원, 하수도 분야 19건, 2,376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정수장 정비와 관망 현대화, 하수처리장 증

설, 하수관거 정비 등이 포함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기반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주시는 상·하수도 사업의 재원 구조를 국비 중심으로 전환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하수도 시설 건설과 자재 공급, 관련 인력 투입 등이 이어지면서 지역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상·하수도는 시민 생활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서부산권 4개구,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

사상구 등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선정

낙동강을 공유하는 부산 서부산권 4개 구가 AI·디지털 기반 평생학습 협력 체계 구성에 나선다.

사상구는 교육부의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사상·북·사하·강서구 4개 구가 공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평생학습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다.

이번 사업 핵심은 그간 각 구청이 따로 운영해 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서부산권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4개 구

를 관통하는 낙동강을 공동 학습 콘텐츠의 소재로 삼아 지역의 생태·문화 자산을 교육과 연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AI 생태 해설사 양성 과정', '낙동강 디지털 학습 스탬프 투어', '지역 명소 디지털 컬러링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등이 편성됐다.

4개 구는 공동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공유 체계를 통해 학습 결과물을 지역 축제와 문화 콘텐츠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서부산권 평생학습 브랜드 정착을 목표로 삼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통영시, 공모사업 53건 선정... 1.2조 확보

시민 1인당 약 1034만원 수혜

통영시가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끌어냈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53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조 20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 공모 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수치로, 2026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인 3680억원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시민 1인당 수혜액으로 환산하면 약 1034만원으로, 경남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성과의 중심에는 국내 최초로 선정된 1조 1400억원 규모의 '복합해안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있다. 도산권과 도남권을 잇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올해 초 '2026 K-브랜드 어워즈'

를 수상하기도 했다.

대형 국책 사업 외에도 CLEAN 국가 어항 조성사업, 여촌신활력증진사업, 명정지구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사업 등 구도심·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스마트 빌리지 보급·확산사업,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공모 사업 등 청년·문화 인프라 사업도 함께 확보해 균형 있는 사업 구성을 이뤘다는 평가다.

통영시 관계자는 "국·도비 확보는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확보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삼광원테크 '리쇼어링' 추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7일 경산시청에서 정밀 플라스틱 사출 전문기업인 (주)삼광원테크의 국내복귀 투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주)삼광원테크가 글로벌 스마트폰 산업 공급을 위해 진출했던 중국 광둥성 동관 법인을 철수하고, 국내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경산지식산업지구로 돌아오는 '리쇼어링(국내복귀)' 사례다.

DGFEZ는 이번 투자가 경산지구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한중 경제·무역분야 협력 모색

진일표(陳日彪, 陳日彪) 주부산중국총영사가 1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을 찾아 양측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진일표 총영사와 중국 측 관계자들, 원소빈 중국 공상은행(ICBC) 부산지점장이 함께했다.

면담을 통해 한중 경제·무역 분야의 실무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2026년 중국 투자 유치 설명회'의 개최 방향과 APEC 관련 경제 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뉘었다.

/부산=이도식 기자

유통가 총수 지난해 보수 공개 경영환경 따라 수령액도 갈렸다

신동빈 149억, 롯데 계열사 부진에 ↓
정유경 43억, 전년보다 20.4% 증가
이재현 39억, CJ제일제당 급여 소폭 ↑
정교선 23억, 현대백 상여 힘입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국내 주요 유통·식품 기업 오너 및 경영진의 지난해 보수가 기업별 실적과 경영 환경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롯데쇼핑·롯데케미칼·롯데웰푸드·롯데칠성음료 등 5개 계열사에서 총 149억9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전년(178억3400만원)보다 15.9%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롯데지주에서 받은 보수는 급여 32억원, 상여 10억원 등 총 42억1000만원으로 전년(59억7200만원) 대비 29.5% 줄었다. 급여는 전년 38억원에서 감소했고, 상여 역시 전년(21억7000만원)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계열사별로는 롯데쇼핑에서 36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4% 증가했지만, 롯데케미칼(22억7500만원, -40.1%), 롯데칠성음료(22억5000만원, -35.6%), 롯데웰푸드(25억9700만원, -0.3%) 등에서는 감소했다. 해당 총보수에는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지난해 급여 24억4600만원과 상여 18억8400만원 등 총 43억3000만원을 수령하며 전년(35억9600만원) 대비 20.4% 증가했다. 이명희 총괄회장과 정재은 명예회장은 각각 11억9100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5.8% 감소한 수준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CJ제일제당에서 급여로만 39억1800만원을 받아 전년(37억4900만원)보다 4.5% 증가했다. 상여나 기타소득은 지급되지 않았다. 같은 회사에서 손경식 회장은 급여 38억2100만원과 상여 28억4300만원, 복리후생성 지원금 9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67억400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한 수준이다.

CJ제일제당에서는 강신호 대표가 31억7500만원, 그레고리 엽 식품사업부 대표가 37억1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사임한 박민석 전 대표는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등에 따라 96억5500만원을 수령했다.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겸 현대쇼핑 대표이사는 지난해 급여 19억4000만원과 상여 4억7500만원 등 총 23억79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전년(20억4300만원) 대비 16.4%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확대 등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별 실적과 성과 반영 여부에 따라 총수 및 경영진 보수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식품산단 내 폐기물 선별장 부적절”

하이트진로 현도산단 입지 재검토 촉구
행정소송 진행… 입주기업 반발 계속

청주시가 현도일반산업단지(현도산단)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근에 공장을 둔 하이트진로가 입지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식품 제조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부에 대규모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도산단은 30년 이상 식품 제조 중심으로 운영된 산업단지, 위생과 청결이 핵심 경쟁력이다. 그러나 폐기물 선별장이 들어설 경우 악취, 분진, 바이오에어로졸 등 외부 오염 요인이 증가하면서 제조 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이트진로 측은 “식품 산업은 단 1%의 위험도 허용되지 않는 산업”이라며 “외부 오염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유지 부담과 함께 브랜드 신뢰 훼손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생산’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입지 갈등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당 부지는 원래 폐기물 매립장 용도였지만, 이후 재활용 시설로 기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2022년 11월 충청북도가 ‘폐기물 매립장 및 재활용시설’로 용도를 바꾼 데 이어, 2025년 4월에는 ‘재활용시설’로 다시 변경 고시한 것. 이 과정에서 입주기업과 주민 반발이 본격화됐고, 2024년 7월부터 시청과 도청, 공사 현장 등에서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시설 전환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규모가 달라지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기업 측은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2025년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9월 기각됐고, 10월에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 신청도 이어졌지만, 2025년 12월 충청북도 고시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사는 곧바로 착공됐다. 이후 청주시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 핫식스 더킹 파인버스트 선보여

타우린 1000mg 함유해 집중 더해

롯데칠성음료가 에너지 음료 ‘핫식스 더킹 파인버스트’를 출시한다.

롯데칠성음료는 다양한 맛과 향의 에너지 음료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 음료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핫식스 브랜드 제품군 강화를 위해 핫식스 더킹 파인버스트를 선보인다.

핫식스 더킹 파인버스트는 에너지와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음용할 수 있으며 타우린 1000mg을 함유했다. 파인애플 과즙 10%를 더해 진하고 달콤한 파인애플

플 풍미가 특징이다.

핫식스 더킹 파인버스트는 355ml 용량에 파인애플을 상징하는 노란색 바탕을 통해 풍부한 파인애플 과즙을 표현했으며, 불사조 모양을 통해 핫식스 더킹의 강렬한 에너지를 담았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핫식스 더킹 파인버스트는 파인애플의 달콤한 풍미와 강렬한 에너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에너지 음료”라며 “다양한 맛과 향의 에너지 음료를 선보이며 소비자의 에너지 음료 선택권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기체제어’ 저장 사과 본격출하

이상기후로 불안한 사과 수급 대응
CA 저장 기술로 신선도 오래 유지
지난해보다 물량 20% 늘려 판매



롯데마트가 기체제어 저장 기술을 활용한 사과를 출하한다. /롯데쇼핑

롯데마트가 ‘기체 제어(CA, Controlled Atmosphere)’ 저장 기술을 활용한 사과를 본격 출하하며 이상기후에 따른 수급 불안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기체제어 저장은 온도와 습도뿐 아니라 저장고 내 산소 농도를 낮춰 농산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농산물의 노화를 늦추고 미생물과 곰팡이 발생을 막아 수확 후 수개월이 지나도 갓 탄 듯한 식감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다. 이상기후가 찾아지는 환경에서 농산물 품질 저하와 수급 불안정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이상기후로 사과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

이처럼 사과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롯데마트는 충북 증평의 롯데 신선품질혁신센터 기체제어 저장고에 보관해 온 사과 600톤을 출하한다. 이는 2025년 작황 부진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물량을 20% 늘린 규모다. 출하 상품은 ‘갓따온 그대로 사과(4~6입/봉/국산)’로 19일부터 1만 7900원에 판매된다. 지난해 10월 수확한 사과를 비과과 당도선별로 13브릭스(Brix) 이상의 고당도 과실만 엄선했다.

롯데마트가 이번에 평소보다 한 달 앞서 기체제어 저장 사과를 출하하는 배경에는 ‘저장 말기’ 수급 불안이 있다. 일반적으로 3~4월은 저장 사과 물량이 줄고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다. 특히 2025년산 사과는 수확기 이례적 폭우로 당도와 저장성이 크게 약화된 만큼, 시간이 갈수록 품질 유지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신원선 기자

CJ온스타일, KBO 협업 굿즈 첫선

10개 구단 굿즈 미디어데이서 공개

CJ온스타일이 KBO(한국야구위원회)와 올 시즌 협업의 포문을 연다.

CJ온스타일은 KBO와 손잡고 선보이는 10개 구단 협업 굿즈를 오는 26일 ‘2026 신한 SOL KBO리그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에서 최초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CJ온스타일은 1200만 야구 팬덤 기반의 스포츠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 확장에 나선다.

협업의 시작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열리는 ‘2026 신한 SOL KBO리그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다. CJ온스타일은 행사 현장에 팝업 부스를 마련하고 10개 구단 협업 굿즈를 최초 공개한다. 부스에서는 굿즈 전시와 포토존 체험뿐 아니라 야구 콘셉트로 디자인한 네임스티커 프린터 체험 공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즌 굿즈는 ‘일상 속 우승 기원’을 콘셉트로 직관, 집관, 출근, 여행



CJ온스타일이 26일 KBO 리그 미디어데이서 첫 공개하는 10개 구단 나른 방도스카프. /CJ온스타일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기획했다. 야구 배트·가방 모양의 타일 키링과 핸드타월, 유니폼과 야구공을 형상화한 센터드 사체와 스트레스볼, 구단별 캐릭터로 디자인한 피크니 매트, 방도 스카프, 양산 등 총 12종이다. 굿즈는 오는 4월 9일부터 CJ온스타일 모바일 앱에서 선판매 된다.

/신원선 기자

아워홈, 인천공항서 ‘BTS 더 시티’ 맛 선봬

인천공항 유일 F&B 파트너로 참여
BTS 콘셉트 담은 특별 메뉴 운영

아워홈은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BTS THE CITY ARIRANG SEOUL)’ 행사 F&B 파트너로 참여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특별한 맛과 경험을 선보인다. 인천

공항에서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아워홈이 유일하다.

하이프의 ‘더 시티’는 소속 아티스트 콘서트나 앨범 발매 시점에 맞춰 도시 전역에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시형 플레이 파크’ 행사다. 이번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진행한다. 아워홈은 이 시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장소인 인천공항에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 파트너십을 마련했다.

파트너십 기간 동안 인천공항 제1, 2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컬러너리스퀘어 바이 아워홈’ 매장에서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 콘셉트와 연계한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지배구조 고도화’로 상법 개정 적극 대응

주중 앞둔 제약·바이오 기업
 감사위원 선제 선임으로 불확실성 ↓
 삼바·녹십자·한미약품·콜마그룹 등
 전문경영인 선임·연임 ‘주요 안건’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 시행



오는 20일부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 막을 올린다. /제마나이 생성 이미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구조 고도화에 나섰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해임 관련 3% 룰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1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프스홀딩스, 셀트리온 등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다. 전통 제약사로는 유한양행, GC녹십자 등도 해당 안건을 다룬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법이 개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한다. 최대주주 영향력은 축소하고 소수주주 권익은 보호한다는 취지다. 같은 경우 기존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하는 개별 3%가 적용되어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감사위원을 선제적으로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경영인 선임 및 연임 여부에 대한 안건도 줄을 잇고 있다.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와 맞물려 이사회 견제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경영진 구성은 향후 기업 경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 등의 재선임이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제약 업계에서는 허은철 녹십자 대표,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 등이 재선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기업들은 이들의 연임으로 사업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한다. 기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에쿼티(PE)부문 대표가 신임 대표로 내정된 상황이다. 특히 황상연 대표는 투자 전문가로 알려져, 신약개발 중심의 한미약품 경영 체제가 변화를 맞을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콜마그룹은 이번 주총을 통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콜마그룹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의 신규 사내이사 후보에 조영주 콜마홀딩스 재무그룹장이 눈에 띈다. 조영주 그룹

장은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지 각자 대표 측 인사로 알려졌다. 지난해 콜마그룹에서 창업주 장남 윤상현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각자 대표는 경영권을 놓고 대립한 바 있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친화 정책도 적극 시행된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기존 보유하는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각 규모를 약 911만주(3월 5일 종가 기준, 1조9268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번 주총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한미약품그룹도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제이브이엠(JVM) 3사가 각각 보유한 자사주의 70%를 소각하고, 나머지 30%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는 안건을 공시했다.

국내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의 의미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대응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며 “감사위원 선임과 자사주 정책, 경영진 구성 전반에서 기업별 전략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아일로 ‘슬림컷 젤리’ /동아제약

동아제약 ‘아일로’ 혈당·체지방·배변 한 번에 고민 해결

동아제약은 고급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에서 혈당·체지방·배변 고민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3중 기능성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슬림컷 젤리’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막대형 젤리 형태로 설계됐다. 기존 브랜드 대표 제품 ‘듀얼 슬림컷’이 정제 형태인 점과 차별화됐다. 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등에 배변 활동 원할 기능을 더해 3중 기능성으로 확장했다.

특히 아일로 ‘빨간맛 다이어트’ 기능은 강화했다. 고춧가루, 계피, 흑후추 등 엄선된 매운맛 부원료를 배합했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중 자주 느끼는 ‘씹는 욕구’를 고려해 탱글한 젤리 속에 톡톡 터지는 치아씨드를 활용해 간식을 먹는 듯한 식감과 든든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도 함유한다.

/이청하 기자

서정진 회장 직판 성과... ‘짐펜트라’ 美 처방 3배 급증

(셀트리온)

올해 1월 처방량, 지난해 1분기 넘어서 회장 등 짐펜트라 잠점 직접 알려



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올해 2월 기준 미국 도소매 업체에 공급된 짐펜트라 출하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상 의료 기관은 실제 환자 처방 추이를 고려해 도소매 업체에 발주를 넣는 만큼, 출하량 증가는 환자 처방 증가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짐펜트라 처방 성과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에서 주도하는 의료진 대상 맞춤형

마케팅 활동 및 환급 커버리지 확보 등 3P(전문·보행사·환자) 전략이 주요한 결과로 풀이된다.

셀트리온은 2024년 3월 짐펜트라 출시 이후 약 1년 동안 미국 전역의 자가면역질환 전문의(provider)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서정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미국 법인 소속 영업 인력들이 현지 주요 의료진을 직접 만나 짐펜트라 임상적 가치와 치료 옵션으로서의 장점을 알려 왔다.

환자 환급이 가능한 보험사(payer) 처방집을 빠르게 확보한 점 역시 짐펜트라 판매 가속화에 크게 기여했다. 셀트

리온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를 포함한 다수의 중대형 PBM 및 보험사와 짐펜트라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하며 전체 보험 시장의 약 90% 가 넘는 커버리지(가입자 수 기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환자(Patient) 대상 온·오프라인 광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유튜브와 TV 등을 적극 활용한 미디어 광고 캠페인과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활동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은 짐펜트라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여 실제 처방 확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세경 기자 seilee@

조아제약 ‘달샷 에너지젤’ 카톡 선물하기 입점



조아제약은 ‘달샷 에너지젤’ (사진)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공식 입점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조아제약 공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우리의식탁 등 주요 이커머스 채널에 이어 이번 입점으로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제품을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게 됐다.

달샷 에너지젤은 러너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베타인과 글루타민을 각각 고품량으로 배합한 제품이다. 베타인과 글루타민은 유산소 대사 활성화, 운동 수행 능력, 장시간 운동 시 피로 관리와 근육 기능 유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다.

조아제약은 최근 러닝과 마라톤을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발맞춰 모바일 기반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으로 러닝을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께서 더 편리하게 달샷 에너지젤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유통 채널을 다각화해 소비자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로슈-엔비디아, AI 신약개발 구체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공장’ 출범

스위스 빅파마 로슈가 신약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

로슈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엔비디아와 협력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공장’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로슈는 2176개의 최신 GPU를 추가 확보, 총 3500개 이상의 GPU를 운영하게 됐다. 이는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공개된 AI 인프라 가운데 최대 규모다.

로슈는 해당 AI 공장을 미국, 유럽 등의 전역에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 데이터 센터 설립이 아닌 연구개발부터 제조, 진단, 디지털 헬스까지 제약 산업 전반에서 가치 사슬을 이끄는 데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고성능 슈퍼컴퓨팅 플랫폼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로슈는 분야별 활용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연구개발에서는 엔비디아의 바이오 AI 플랫폼을 활용해 실험과 AI 모델을 연결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규모 가설을 검증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조 부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 공정을 가상으로 구현하며 최적화해 나간다. 진단 영역에서는 유전체 데이터 분석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산도스, 전략적 협업 강화

‘SB36’ 전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협력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스위스 소재 글로벌 제약사 산도스와 바이오시밀러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및 판매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엔티비오(성분명: 베들리주담) 바이오시밀러 ‘SB36’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초기 협력 계약이다.

엔티비오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 장에 결합하는 ‘알파4베타7 인테그린’ 단백질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기전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글로벌 매출액은 약 9조원에 달한다.

본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제품 개발과 생산 및 공급을, 산도스는 상업화 시점에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대한민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판권을 갖게 되며,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SB36을 포함한 후속 파이프라인 최대 5종에 대한 전략적 협업 파트너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사는 2023년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담) 바이오시밀러 ‘SB17’의 북미·유럽 시장 판매 파트너십 체결에 이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게 됐다. /이청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현대제철, 고객동행 신년회 열고 로드맵 공유

현대제철은 지난 13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2026년 현대제철 고객동행 신년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시장 전망과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대제철 이보룡 사장(사진 중앙)과 임원들이 고객사 대표들과 함께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제철



LIG넥스원, '서해수호의날' 제2함대사령부서 추모

LIG넥스원은 다가오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신입사원을 포함한 임직원 70여명이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LIG넥스원 신입사원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서해 수호관을 방문해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LIG넥스원



NH농협카드, 한국철도공사와 상생 업무협약

NH농협카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결제 서비스 제고 및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영선 NH농협카드 부사장(오른쪽)과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팀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NH농협카드



오스템임플란트, 생산공장 'K1' 우수제조소 인증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플란트 생산공장인 K1 오렌지타워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KGMP)' 적합을 재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K1은 의료기기 우수제조시설로서 간소 절차를 통해 KGMP 정기심사를 통과했다. 오스템임플란트 K1 오렌지타워 전경.

/오스템임플란트



"스타필드에서 즐기는 '엠버서DOG 페스타'"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가 봄을 맞아 반려견 동반 고객을 위한 '엠버서DOG 페스타'를 연다. 스타필드는 2016년 스타필드 하남 오픈 당시 국내 쇼핑몰 최초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한 이후 펫파크, 전용 엘리베이터, 무료차 대여 등 펫 프렌들리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신세계프라퍼티

LG 구겐하임 어워드, AI 시선 담은 트레버 페글렌 선정

LG '책임 있는 AI' 철학과 연결
상금 10만 달러·트로피 수여

LG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2026년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시선에 질문을 던져온 미디어 아티스트 트레버 페글렌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LG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맺은 'LG 구겐하임 아트&테크 파트너십'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창의적 혁신을 만들어 낸 예술가에게 상금(10만 달러)과 트로피(Physical award)를 수여하며 작가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인 트레버 페글렌은 미국 출신 지리학자이자 미디어 아티스



트레버 페글렌 작가의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 '이미지넷의 얼굴들(Faces of ImageNet, 2022)'

/LG

트로, AI와 디지털 기술이 가진 권력 구조와 감시 체계를 사진과 영상, 조형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해

왔다. 대표작 중 하나인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 '이미지넷의 얼굴들(Faces of Im

ageNet, 2022)'은 AI가 사진 속 사람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역으로 이용해, 편견을 학습한 AI가 얼마나 차별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관객이 카메라 앞에 서면 AI가 해당 인물을 어떤 범주로 분류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LG가 추구하는 '책임 있는 AI' 철학은 기술의 윤리적 의미를 성찰하는 페글렌의 작품 세계와 연결된다.

LG는 전 세계 기업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매년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도 발간하며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현대위아, 서울숲에 '도담정원' 조성

서울시와 손잡고 휴식 공간 제공

현대위아가 서울시와 손잡고 도심 속 정원 조성에 나선다.

현대위아는 지난 17일 서울시장에서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위아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에 시민 휴식 공간인 '도담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대위아가 서울시에 자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담정원은 멸종위기종 담비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도담이'를 활용해 기획된 자연 친화형 공간이다. 약 401㎡ 규모 부지에 쫓꽃나무와 지리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왼쪽부터), 맹기현 현대위아 상무,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이원태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이 1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장에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위아

산터리플 등을 식재해 녹지 쉼터를 조성하고, 꿀벌이 모이는 밀원식물 공간도 함께 마련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IBK기업銀, 프랜차이즈 자금관리 지원

멕시코나와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은 18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및 가맹점주에 대한 자금관리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멕시코나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맹본사와 협력해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맞춤형 금융 및 영업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멕시코나 브랜드 특성을 반영한 프랜차이즈 서비스형 banking(BaS) 서비스 제공 ▲협력 기업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일상적인 자금 흐름 관리부터 결제, 운영 자금 확보까지 편리하고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지원받게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소진공, 성수기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

전통시장·소상공인 대상 캠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소상공인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다.

소진공은 최근 지역축제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바

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나섰다

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및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책 내용을 안내하고 전통시장과 숙박·음식점·소매점포 등에서 가격 표시 준수와 합리적인 가격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승호 기자 bada@

KCON, 공연 넘어 글로벌 팬 경험 확장

CJ ENM, 참여형 페스티벌 지향

CJ ENM이 주최하는 K-컬처 페스티벌 'KCON'이 단순 공연을 넘어 K-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CJ ENM은 2026년 KCON의 연간 테마를 'Walk in SOUL CITY'로 확정하고, K-팝을 비롯해 K-푸드·뷰티·스토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한 '월드 넘버원 K-라이프스타일 페스티벌'로 확장하겠다고 19일 밝혔다. 'SOUL CITY'는 K-컬처 전반을 하나의 도시처럼 경험하는 콘셉트로

관람객이 직접 취향을 탐색하며 체험을 축적하는 참여형 페스티벌을 지향한다.

오는 5월 8~10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KCON JAPAN 2026'에서는 한층 강화된 '페스티벌 그라운드'가 공개된다. 기존 K-팝 중심 구성에서 나아가 K-드라마·웹툰 등을 포함한 'K-스토리' 존을 신설, 콘텐츠 스펙트럼을 확대했다. CJ ENM은 이를 통해 글로벌 팬들의 체류 시간과 경험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취임

"승풍파랑 정신으로 도약하자"

한국수력원자력 김회천 신임 사장(사진)이 18일 공식 취임하며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정신으로 세계 원전 산업에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경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투트랙으로 원전 시장 선점 전략을 수립해 해외 원전 시장을 공격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사업과 관련해 "이미 수



주한 해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수요국 맞춤형 수주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안전 최우선 ▲기존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신규 원전 건설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사

- ◆재정경제부 ◇과장급 인사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윤범식
- ◆매일일보 △전국부 국장 장성준

부음

- ▲한만영씨 별세, 김병규(넷마블 대표이사)씨 부부상=17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603호, 발인 19일 오전 10시30분. 051-636-4444
- ▲조종혁(향년 85세)씨 별세, 송정숙씨 남편상, 조덕환·미정씨 부친상, 우송봉(LG전자 홍보담당 상무)씨 장인상, 정명옥씨 시부상 = 18일, 신촌세브란스병

원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장지 영은실학동산. ☎ 02-2227-7500

▲안광필씨 별세, 안태석(KB증권 M&A본부장)씨 부친상=18일,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특실2, 발인 20일 오전 7시40분, 장지 인천 하늘의 문 성당 봉안당. 02-2227-7500

▲신재연씨 별세, 최종세·종휘씨 모친상, 장혜순·김지연씨 시모상, 최용호(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이사)·연화·찬호·인혁씨 조모상, 연유정씨 시조모상=18일,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괴산호곡원. 02-2650-5121

합격을 부르는 학생부 스토리텔링 전략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대한민국 대입의 정점인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두고 현재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오해가 가득하다. '전 과목 1.0 등급'이나 '화려한 논문'이 필수라는 강박은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생명력 없는 기록으로 전락시키곤 한다. 그러나 서울대 입학 웹진 '아로리'가 공개한 합격자들의 지적 여정을 분석하면, 서울대가 찾는 인재의 실체는 결코 다듬어진 숫자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의 기록에는 정형화된 정답 대신 스스로 흐름을 자처한 인간의 치열한 학업적 발자취가 담겨 있었다.

합격을 부르는 첫 번째 열쇠는 '유불리를 압도하는 지적 용기'다. 많은 수험생이 등급 확보를 위해 인원이 많은 과목으로 회피할 때, 합격생들은 오히려 자신의 지적 갈등을 채워줄 수업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교에서 단 세 명만 듣는 프랑스어 수업을 자진 수강한 식물생산과학부 합격생, 시각

장애라는 제약 속에서도 수학적 논리를 깊게 다루려 심화 과학 과목을 모두 완주한 통계학과 합격생의 사례는 '진짜 학생'의 기준을 보여준다. 과목 선택은 점수 획득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자기소개서임을 명심하자.

두 번째는 교과서의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탐구의 집요함'입니다. 합격생들은 수업 중 생긴 작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 콤포턴 효과의 근사치 풀이에 의구심을 품고 드브로이의 물질과 이론을 가져와 스스로 증명해 낸 의예과 합격생, 푸리에 변환을 독학해 코딩으로 구현한 스마트시스템과학과 합격생의 기록은 압도적인 학업 역량을 증명한다. 'RNA 앵무새'라 불릴 만큼 특정 주제에 몰입하고, 실패와 오류를 숨기지 않고 그 원인을 추적하며 지식을 재구성하는 '메타인지' 역량이야말로 서울대가 가장 높게 사는 연구자적 태도의 정수다.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 또한 핵심이다. 농경제사회학부 합격생은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며 지식을 재구조화했고, 정치외교학부 합격생은 '수기 민주주의'

이론을 학교 공간 규칙 제정에 직접 적용하며 갈등을 해결했다. 리더십은 자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헌신에서 나온다. 친구의 부진을 돕기 위해 노트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지식이 더 명료해지는 기쁨을 느꼈던 진솔한 에피소드는 지성이 인성을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잘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독서'는 세상의 해상도를 높이는 뿌리다. 대입 미반영이라는 파고 속에서도 합격생들은 '자유론'과 '프린키피아'를 통해 지적 근력을 키웠다. 독서 흔적은 이제 특정 항목이 아니라 전 과목의 기록 속에 녹아들어 탐구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가 됐다.

결국 서울대 아로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자명하다. 학생부는 화려한 스펙 나열이 아니라 3년의 세월을 비추는 진실한 거울이어야 한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문을 탐구할 준비가 된 진짜 학생이 될 것인가"라고 말이다. 매 순간의 진심 어린 탐구가 쌓일 때 당신의 기록은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SB진로진학연구소장.

팍스 아메리카나의 실질적 종말



기 지 수첩
서 예 진
(정치부)

"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위해 수년 동안 보살도 없이 해상 항로를 지켜줘야 하는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말이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공격 사건이 발생하자 이 같은 글을 남긴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5개 국가에 균형을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기본적인 인식을 생각하면 이런 요구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들을 호위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오래 관찰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 국내 한 중동 전문가는 "분명히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들에게 균형을 보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사실상의 '예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미국이 이란 핵합의 탈퇴가 없었다면, 중동 긴장 상황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면서 겁먹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주식시장 상황을 보며 조마조마할 일도 없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책임 전가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응하지 않는다. 20여년쯤 전 이라크 파병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다. 그 시절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예측 불가능하고, 동맹에는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지위를 유지하며 얻었던 지정학적 영향력과 달러 패권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유지 비용만을 동맹에 전가하는 것은 지독한 모순이다. '경찰 노릇'은 그만두면서도 '통행료는 내라'는 식의 논리로는 동맹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 단순한 논리를 지난해 관세 폭탄 사태를 통해 이미 깨달았다. 미국과 동맹국 간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미국일 수 있었던' 이유도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향한 동맹국들의 망설임과 미적거림은 단순히 국익과 군사적 이익 등을 고려한 판단을 넘어섰다.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지금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의 권위가 무너지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실질적으로 종언을 고하는 장면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sy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9일 (음 2월 1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60년생** 남비와 사치를 버리세요. **72년생**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길합니다. **84년생** 주변인들을 너무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 49년생** 지금까지의 일을 고수하면 운이 따를 것입니다. **61년생** 유희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3년생** 오늘은 근심할 때입니다. **85년생** 건강 악화 우려로 가족에게 근심하게 됩니다.
- 50년생** 지출을 조금 줄이도록 하세요. **62년생**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하세요. **74년생**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서 있습니다. **86년생** 옛 것은 다 물리쳐 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 51년생** 조금만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63년생** 지금 부와 명예의 길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75년생**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87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쓰세요.
- 52년생**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64년생** 때로는 낭만적인 면도 있어야 합니다. **76년생**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88년생** 이성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53년생** 옛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65년생** 아주 반가운 손님이 귀하를 방문할 것입니다. **77년생** 조금씩 일이 나아집니다. **89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세요.
- 54년생**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66년생** 모든 일에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78년생** 여행은 이번보다는 다음에 떠나세요. **90년생**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 55년생** 모든 일이 전반적으로 잘 풀립니다. **67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주의하세요. **79년생** 귀하의 능력을 평가받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91년생** 행운의 숫자는 9번입니다.
- 56년생** 매사에 조금 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세요. **80년생** 앞으로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92년생**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 57년생** 깊이 생각한 뒤 상대를 따른다면 즐거운 날이 됩니다. **69년생** 현금은 저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1년생** 즉각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93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습니다.
- 58년생**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70년생**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나뉩니다. **82년생** 계획성이 모자라 위험에 빠집니다. **94년생** 뒷사람의 협력을 받게 됩니다.
- 59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71년생** 작은 일은 해결됐으나 더욱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83년생** 공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95년생** 이 성과의 값들이 우려됩니다.



김상회의四季 엘리자베스의 힘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여왕 엘리자베스 1세다. 그녀는 왕이라는 자리에서 찬란한 영화를 누린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녀의 화려한 초상화 뒤에는 태생부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던 처절한 생존 투쟁이 숨어 있다. 엘리자베스의 불행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헨리 8세였다. 아들이 없었던 헨리 8세는 첫 부인과 이혼을 강행하고 앤 불린과 재혼했다. 앤 불린이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인데 왕이 원했던 아들이 아닌 딸 엘리자베스를 낳았다. 실망한 왕은 앤 불린을 간통죄로 몰아 처형하고, 세 살이었던 엘리자베스는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고 왕위 계승권도 박탈당했다. 이복언니 메리 1세가 왕위에 오르자 개신교 신자였던 엘리자베스는 반역 음모에 휘말려 런던탑에 갇히게 된다. 어머니가 처형당했던 그곳에서 그녀는 최대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그녀는 극한의 위기에서 인간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길렀고, 타협과 기다림이라는 정치적 무기를 연마했다. 1558년, 메리 1세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결국 엘리자베스는 왕위에 올랐다. 당시 영국은 종교 갈등과 재정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을 다진 그녀의 지혜가 빛을 발했다. 극단적인 종교 대립을 중재하며 국론을 모았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며 영국을 해상 강국으로 일궈냈다. 사람들은 성공한 군주의 모습으로만 엘리자베스를 기억하는데 진정한 힘은 왕위에 오르기 전, 고난의 시간에 만들어졌다. 그녀의 삶은 명리학의 절치부생을 떠올리게 한다. 끊어진 듯한 절벽 끝에서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만나는 뜻이다. 지금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찬란한 황금기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파일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7		2			
6		1			8			
	2	5		3		1		
9							4	1
		2				3		
7	1							5
		7		4		5	1	
		6			3			8
	5		8		1			

	8		5	4		2	9	3
			3	2		4		
				9		5	8	
7		4			2			
								1
				9		3		
	7	9			8			
		2		6	9			
8	5	6		3	4			7

9	8	7	1	2	8	6	9	2
8	2	6	8	2	9	9	7	1
2	1	9	9	7	2	2	8	8
9	9	2	6	8	8	7	1	2
6	8	8	7	1	2	2	9	9
1	7	2	9	9	2	8	8	6
2	6	1	8	8	9	9	2	7
7	9	8	2	6	1	8	2	9
8	2	9	2	9	7	1	6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7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7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 폐교, AI·특수교육·마음치유학교 등으로 '탈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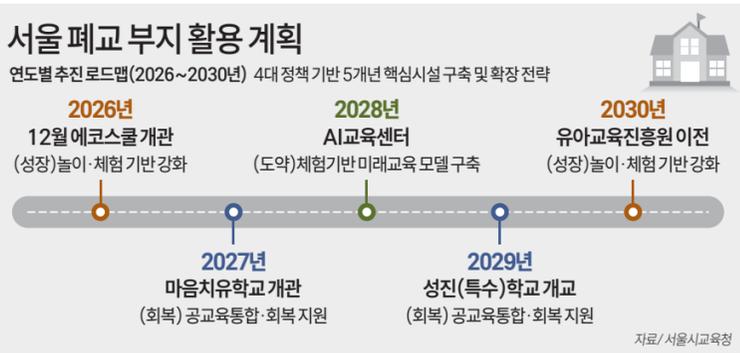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

이전적지·폐교활용 5개년 계획 발표
올해부터 2030년까지 2732억 투입
공교육 플랫폼·지역 복합공간 조성

서울의 폐교와 학교 이전적지가 미래 교육 거점으로 재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공간을 AI교육, 특수교육, 심리정서 지원, 유아교육을 담은 공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학교 이전적지와 폐교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지역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학교이전적지·폐교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폐교를 단순 유휴시설이 아닌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교육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 중장기 교육 공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로 폐교와 유휴시설이 계속 발생하



고 있다. 그동안 폐교 활용은 개별 부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 장기 미활용, 시설 관리 문제 등이 반복됐다. 교육시설과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져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에서 폐교 활용의 출발점을 '이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에서 '이 공간이 서울교육의 다음 10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단독으로 시설 활용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

라, 교육적 활용 방향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협력 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 틀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공교육 거점형 공간 구축 ▲미래 교육·혁신 플랫폼 실현 ▲지역 맞춤형 복합시설 구축 ▲운영·관리 체계 강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성장·회복·도약·순환의 4대 정책 축을 기반으로 권역별 핵심 교육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 시설 로드맵도 제시했다. 2026년 강서구 공진중에는 '에코스쿨(생태환경교

육파크)'을 개관하고, 2027년에는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에 '마음치유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8년에는 종로구 구청사 1~2층에 'AI 교육센터'를 만들고, 2029년에는 성동구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2030년에는 강서구 염강초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전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5개 권역별 확장 전략도 담겼다. 교육청은 앞으로 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 등 5개 권역에서 학교 이전적지나 폐교, 유휴공간이 발생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공간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서북권에는 학생·주민이 함께 쓰는 체육·문화 거점과 미래교육 체험공간, 동남권에는 심리정서 지원 거점과 공교육 회복 모델, 서남권에는 세대 연계형 학습공간 등을 구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폐교 발생부터 활용

결정, 개관까지 사업 추진 절차를 표준화하고, 권역별 활용 우선순위와 폐교 전환기 관리 방안, 대내외 협력 및 조정 방안, 지역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담았다. 폐교 활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단계별 협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약 2732억원으로, 2026년 교육청 본예산의 약 2.5% 수준이다. 재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 71%, 국비 등 외부 재원 29%로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폐교를 단순히 활용하는 계획을 넘어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미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서울 곳곳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양, 신중년 재취업·자기계발 돕는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180명 모집

고양시는 '2026년 고양시 신중년캠퍼스' 상반기 교육과정 학습자 180명을 오는 3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중년캠퍼스는 만 50세부터 64세까지의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과 협력해 재취업과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중장년층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상반기 교육과정은 6개 특화과정과 1개 공통과정으로 구성되며, 오는 4월 7일부터 8월까지 운영된다. 특화과정은 대학별 전문성을 반영해 ▲농협대학교 도시농업터널 과정 ▲동국대학교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 ▲중부대학교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 및 자기탐색 인문학 교실 ▲한국항공대학교 탄소

중립 코디네이터 양성과정과 SW·AI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등으로 마련됐다.

모집 인원은 과정별 30명씩 총 180명이며, 고양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6개 특화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또한 동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공통과정 '약학 전문가가 제안하는 올바른 약 복용법'은 모든 참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포함됐다.

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내 신중년 캠퍼스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월 7일 농협대학교 도시농업터널 과정을 시작으로 각 대학별 교육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며 "하반기에도 추가 모집을 통해 총 14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숯폼에 빠진 고교생, 긴 글 집중력 떨어졌다

10명 중 3명 "10분 독해도 버겁다"
58% "목적 없이 앱부터 연다"
78% "예정보다 오래 보게 된다"

고등학교 10명 중 3명은 긴 글을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쇼츠와 릴스 같은 숯폼 콘텐츠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장문 독해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학사는 고등학교 3525명을 대상으로 숯폼 시청 습관과 학습 집중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길게 읽어야 하는 글을 10

분 이상 집중해서 읽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많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22.2%, '매우 그렇다'는 8.4%로, 전체의 30.6%가 긴 글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반면 '아니다'는 26%, '전혀 아니다'는 15%로, 부정 응답은 41%였다. 진학사는 수능 지문이나 교과서처럼 긴 텍스트를 읽고 분석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경향이 학습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숯폼 이용은 이미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9%는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숯폼 앱을 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그렇다' 35.8%, '매우 그렇다' 22.1%

였다. 반대로 '아니다'는 12.5%, '전혀 아니다'는 4.6%로, 비습관적 이용 응답은 17.1%에 그쳤다. 상당수 학생이 별다른 목적 없이 숯폼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청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원할 때 멈출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에 그쳤다. 반면 78.4%는 의도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시청하게 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가능하지만 가끔 길어진다 51.6% ▲멈추고 싶어도 자주 길어진다 20.1% ▲통제가 어렵다 6.8%로 조사됐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19일 (목)
음력 : 2월 1일

수도권 날씨
1 ~ 1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경기도, 가을 DMZ OPEN 페스티벌 연다

9월 전시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개최
국제음악제·포럼·걷기·마라톤 운영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 초까지 DMZ 일원에서 '2026년 DMZ OPEN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통일부와의 적극 협업으로 국내·외 위상을 높이고, 약 2개월간 집중 개최 방식으로 운영해 축제의 체감도와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 DMZ 일원에서 열리는 'DMZ OPEN 페스티벌'은 선을 열어 삶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DMZ의 선(Lin e)을 열어 일상과 세계를 잇는 평화의 흐름을 만들고자 기획된 종합 축제이다.

9월에는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DMZ OPEN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며, 10월부터는 DMZ OPEN 국제음악제, DMZ OPEN 에코피스포럼, DMZ OPEN 평화걷기 등이 진행되며, 11월초 DMZ OPEN 평화마라톤을 마지막으로 페스티벌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DMZ OPEN 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성악가와 저명한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음악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통일부와 공동으로 열려 평화담론 확산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표로



2025년 DMZ OPEN 평화마라톤 출발 현장 모습. /경기도

다양한 주제가 참여하는 열린 논의의 장으로, DMZ가 추진하는 '평화 공정'을 넘어 공동번영을 논하는 핵심 창구로 만들 계획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메트로 한줄뉴스



▲하메네이·라리자니·국방장관·사령관... 軍 지휘계통 전원 피살
▲美 "호르무즈 인근 이란 미사일기지를 방커버스터로 폭격" /사진 뉴시스

▲트럼프 방중 연기... "미중관계 악재보단 기회" 분석
▲美 침공 왜 했나... 영국도 "이란, 합의 가능한 제안했었다"

▲이란 국회의장 "호르무즈 해협 질서美 공격 전과 같을 수 없어"
▲"이란, 위안화 거래 조건 8개국과 호르무즈 통과 협의"



유동가 총수
지난해 보수 공개
실적별로 엇갈려
니



Life

주총 앞둔
제약·바이오 기업
상법개정 대응
L2



텃텃함 지우고 입맛에 ‘핏’ 운동·일상용 취향따라 ‘픽’ 맞춤 단백질 골라먹자!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남양유업 ‘테이크핏’

남양유업의 단백질 음료 브랜드 ‘테이크핏’이 출시 4년 만에 시장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2022년 첫 선을 보인 이후 빠르게 라인업을 확장하며 소비자 접점을 넓힌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테이크핏은 초기 ‘맥스(MAX)’ 중심의 단일 제품 구조에서 출발했다. 고단백·저당 콘셉트를 앞세운 RTD(Ready To Drink) 제품으로 편의점 채널을 공략하며 인지도를 확보했다.

2022년 출시 후 라인업 확장해 인지도 확보
맛·향에 집중... ‘맛있는 단백질’ 이미지 구축
재구매율 40% 돌파, 고객 충성도까지 확보
일상, 운동전후 등 목적·상황별 제품 세분화

◆ “단백질 음료는 맛이 전부”...편견 깬다

테이크핏 성공의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하다. ‘맛’이다. 이상호 남양유업 마케팅1부문 과장은 “단백질 음료는 텃텃하고 비리다는 인식이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다”며 “공정 단계부터 다시 설계해 맛과 향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고단백 설계는 유지하면서도 멸균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풍미를 개선했고, 출시 전 블라인드 테스트와 심층 인터뷰 등 소비자 감증을 반복했다. 그 결과 고소한 맛, 바나나맛, 호박고구마맛, 초코맛 등 다양한 플레이버가 고르게 판매되며 ‘맛있는 단백질 음료’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에 출시 2년 만에 오프라인 시장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재구매율 40%를 돌파하며 고객 충성도까지 확보했다. 통상 단백질 음료 재구매율이 30%대에 머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성과다.

◆ 맛·기능성 세분화 선택 폭 늘려

이후 남양유업은 제품을 단순히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섭취 목적과 상황에 따라 세분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현재 테이크핏은 ▲기본형 ‘맥스’ ▲운동 전 기능성을 강화한 ‘프로(PRO)’ ▲가볍게 즐기는 파우치형 ‘아쿠아(AQUA)’ ▲초고단백 콘셉트의 ‘몬스터(MONSTER)’

등으로 구성된 다층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일상 보충부터 운동 전후, 간편 섭취까지 다양한 수요를 포괄하는 구조다. 이같은 확장은 단백질 음료 시장의 소비 패턴 변화와 맞물린다. 과거에는 헬스 중심의 보충제 성격이 강했다면, 최

근에는 ‘데일리 건강 음료’로 소비층이 확대되면서 맛과 제형, 기능을 세분화한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테이크핏 역시 맛 다양화와 기능성 강화를 병행하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업계에서는 테이크핏의 성과를 ‘후발주자의 빠른 시장 안착 사례’로 보고 있다. 빠르게 오프라인 채널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재구매율 등 핵심 지표에서도 성과를 내며 충성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 ‘스포츠×편의점’...선택과 집중 전략 통했다

초기 마케팅 전략도 명확했다. 코어 타겟은 ‘스포츠인’, 채널은 ‘편의점’에 집중했다. 야구·테니스·골프·서핑 등 젊은 세대 선호 스포츠와의 협업을 통해 오프라인 체험을 늘리고, 이를 SNS 확산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유통 전략 역시 정밀했다. 출시 초기 서울·수도권 주요 편의점의 약 90%에 입점하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현재 편의점이 국내 단백질 음료 오프라인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핵심 채널 선점’이 적중한 셈이다.

야구·테니스 등 스포츠와 협업 마케팅 펼쳐 대중성 중심으로 개발... 소비자 의견 수집 부스팅, 파우치형 등 형태·기능별로 차별화

◆ 실패 경험이 만든 ‘소비자 중심 전략’

과거 단백질 보충제 시장에서의 시행착오도 자산이 됐다. 고가·고당·마니아 중심 전략으로 한계를 경험한 남양유업은 이후 제품 개발의 방향을 ‘대중성’으로 선회했다. 신제품 출시 전 소비자 의견 수집을 필수 과정으로 정착시키며 제품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이 같은 전략은 라인업 확장에서도 드러난다. 부스팅 제품 ‘테이크핏 프로’, 파우치형 ‘테이크핏 아쿠아’ 등 형태와 기능을 세분화하면서도 단순 확장이 아닌 수요 기반 제품 기획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일반적으로 라인업이 늘어나면 특정 제품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만, 테이크핏은 제품별 판매량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 조사 기반 상품화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단백질 식품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다. 업계에 따르면 액상 단백질 음료 오프라인 시장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약 600억 원 규모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7% 성장했다.

남양유업은 “소비자 니즈에 맞춘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시장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위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워터형 단백질 음료 ‘테이크핏 프로 사인머스캣맛’, 남양유업에서 개최한 ‘테이크핏 테이스팅대회’, 운동 전 기능성을 강화한 ‘테이크핏 프로’, 초고단백 ‘테이크핏 몬스터’.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테이크핏 맥스 호박고구마맛, 고소한맛, 초코맛, 바나나맛.



▲베네수엘라, 2026 WBC 우승... 사상 첫 대회 정상 올라 /사진 뉴시스
▲김혜성, 2타수 1안타 2득점에 도루까지...시범 경기 7G 연속 안타

▲다저스 돌아온 오타니, 마운드 복귀...19일 샌프란시스코전 선발 등판
▲‘손흥민 7경기 연속 침묵’ LAFC, 북중미 챔피언스컵 극적 8강행

▲‘이강인 교체’ PSG, UCL 8강 진출...레알·아스널·스포르팅도 합류
▲오스카 빛낸 이재(EJAE) ‘골든’ 드레스, ‘대한제국 황실 대례복’서 영감

SI 3대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인재를 키웁니다

LG는 세계 최초 사내 석박사과정 **LG AI대학원**과
청소년대상 LG 디스커버리랩, 청년대상 LG 에이머스 등의
SI 교육과정으로 연간 4만 8천 명 이상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래, 같이

S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